금주의 법구-〈대지도론〉
성내는 마음은 독의 근본이어서
모든 선근을 없애버린다.
성냄을 없애면 근심이 없어진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월 1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34호 2017년 2월 8일 수요일

日 반입 관음좌상 부석사行 '제동'

법원, 검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엇갈린 法적용

법원의 인도판결에 따라 서산 부석사로 돌아갈 예정이던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의 환지본처에 제동이 걸렸다.

인도 명령을 내린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가집행 정지신청을 1월 31일 받아들였다. 검찰은 대전지방법원의 1월 26일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를 낸 상황이다.

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금동보살좌상의 부석사행은 지난한 소송전이 예고된다. 현재 검찰 측은 "판결이 확정 전 불상을 인도할 경우 훼손의 우려가 있고, 항소심 등에서 판결이 달리 나올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 법원 허가에 대해 그동안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을 추진해 온 부석사와 불상봉안위원회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검찰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집행정지를 추진했다. 같은 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판결은 전자 재판 형식이라 판결문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1월 31일 오후까지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았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용되자 바로 열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법원서 다른 결정을 내리고,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강제집행 정지와 검찰 항소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분히 2심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다. 변호사 등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근 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집행위원장(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 역시 "검찰의 항소에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었는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들어 당황스럽다"면서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다.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된 "도난품이니 우선 반환하고 이후에 협의를 통해 환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원우 스님은 "2012년 붙잡힌 한국의 도굴범들은 지금 자신들의 죗값을 치루고 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역사적 잘못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다"며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원소유자가 부석사임이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반환 요청을 했지만, 그들은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4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서산 부석사에 봉안돼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송 일지

2012. 10 한국 절도단, 일본 쓰시마 섬서 불상 2점 밀반입해 검거

2013. 2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1350년 경 왜국 약탈" 주장.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제기 대전지법 받아들여

2015. 7 소유자 주장없던 동조여래입상만 일본 반환

2016. 4 서산 부석사, 정부 상대로 불상 인도청구 소송

2017. 1. 26 대전지법 "정부 보유 불상 부석사에 인도" 판결. 검찰 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

2017. 1. 31 대전지법, 검찰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확정 판결 전까지 불상 이운 금지

이후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 문화재 도굴단이 쓰시마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뒤 검거돼 법원의 반환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국내에 머물고 있다. 현재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와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환수 및 부석사 봉안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해 4월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26일 "정부가 보유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신성민 기자



雪國으로 뒤덮인 기도도량

눈이 내려 사찰 처마 끝부터 바닷가까지 온통 흰 세상이다. 1월 22일 속초 낙산사를 비롯한 동해안 일대는 폭설로 눈부신 설경산수가 펼쳐졌다. 혼탁한 세상을 덮는 눈처럼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지길 발원해보자. 사진은 눈 덮인 홍련암 경내. 사진=고원영 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조계종 중앙종회 '멸빈자 사면' 본격 검토

종헌특위, 2일 소위구성… 3월 임시회 발의 목표
종헌 개정 · 특별법 제정 등 주2회 논의 '속도전'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에 맞춘 멸빈자 사면이 가능할지에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종헌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는 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종회의원 함결 · 성화 · 오심 · 선광 · 원경 · 제민 · 혜초 · 묘주 스님과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멸빈자 사면 논의가 전반기 특위서 이월된 점을 비롯해 종정 진제 스님 교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의지 등에 공감하며 종단 화합차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 지속적인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임시회에 발의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위 간사 성화 스님은 "전반기 특위 논의안건과 사부대중위원회 의견이 이번에 이월됐다. 종정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도 신년하례 때 멸빈자 사면에 대해 말하셨으니 과거 토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원장 함결 스님은 "멸빈에 관한 문제는 종단 숙원이기도 하다. 재심무효화 조치나 호계원 성찰, 멸빈제도 삭제, 사법제도 개선 요구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사면은 공감한다"면서 "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빠른 시일 내에 초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종헌 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1회에 한해 사면하는 방법과 단서조항을 삭제해 일반법으로 사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면 후 일정기간 종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3월 임시회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주2회 정도 소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사면 관련 내용이 담긴 2007~2009년 종헌개정안과 부결된 개정안 등을 참고해 법리적 검토를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특위는 전반기 특위서 논의한 징계법 신설에 관한 안건을 다뤘다. 징계유형별로 각각 형량의 차등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안은 호법부가 '현행 승려법 내 징계부분 보완'이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소위원회에 일임해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호계원과 법규위원회 입장도 추가될 전망이다. 한편 소위원회 회의는 2월 1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韓전통산사 7곳, 세계유산 등재 공식 신청

공식명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내년 7월경 최종 결정

한국의 전통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식 신청됐다.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추진위)는 1월 27일 전통산사 7곳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공식 등재신청 명은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영문으로는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이다. 추진위는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등 7개 사찰로 구성된 연속유산인 '산사'는 신앙과 수도, 생활의 기능이 어우러진 종합 승원(僧院)으로서 오늘날까지 명맥이 이어져 온 소중한 유산"이라고 설명했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2013년 '한국의 전통산사(Traditional Buddhist Mountain Temples of Korea)'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으며, 지난해 7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세계유산 자문, 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현지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2018년도 7월경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교육아사리 신규 · 재위촉

신규 8명 · 재 13명… 총 45명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월 2일 2017년 신규 교육아사리 및 재위촉 교육아사리를 선정 ·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13일 개최된 '교육아사리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신규 교육아사리에는 △초기불교 △대승불교 △한문불전 △응용불교 분야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초기불교 분야에는 송탁(니) 스님이, 대승불교 분야에는 선응 · 현서(니) · 진욱(니) 스님이, 한문불전 분야에는 신경 · 선암(니) 스님, 응용불교 분야에는 혜장(니) · 재마(니) 스님 등 8명이 신규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 2014년에 위촉돼 3년이 경과한 교육아사리 스님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초기불교분야에는 현진 · 자목(니) 스님이, 대승불교 분야에는 현석 · 법상 · 현견스님이, 선불교 분야에는 정운(니) · 영석(니) 스님이, 한문불전 분야에는 원법(니) 스님이, 계율 분야에는 자현스님이, 응용불교 분야에는 정각 · 금강 · 오인(니) 스님이, 불교사 분야에는 형운(니) 스님 등 총 13명이 재위촉됐다.

교육원은 "2017년 신규 및 재위촉된 교육아사리를 포함한 총 45명의 스님들은 앞으로 승가교육을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활동을 담당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회의원 보궐 수덕사 · 대흥사 경선 예고

직능대표 일감 스님 단독 입후보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서 수덕사와 대흥사의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종훈)가 2월 1일 마감한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등록 결과 수덕사는 도신(서산 서광사 주지) · 허정(前 서산 천장사 주지) · 석청(前 서산 간월암 주지) 스님 3인이 입후보했다. 대흥사는 법상(대구 안일사 주지) · 범종(강진 고성사 주지) · 설도(영암 도갑사 주지) 스님이 등록했다. 또한 직능대표 사회분야에는 조계종 백년대계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종회의원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각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진행되며, 직선직 보궐선거는 23일 각 본사서 열린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서울불학승가대학원, 역사의 뒤안길로…

조계종 교육원, 2월 8일 마지막 졸업식 후 폐교

서울과 경기 인근에서 전문적인 내전 공부를 이끌어왔던 조계종 교육원 부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이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조계종 교육원은 2월 8일 오후 3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서울불학승가대학원 제7기 졸업식을 개최한다. 이후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더 이상 입학생을 받지 않고 폐교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2003년 '불교서울전문강당'으로 시작됐다. 시작은 뜨거웠다. 전문적인 한문불전에 대한 전통 강독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서울 · 경기 지역의 스님들이 앞 다퉈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었다. 또한 신심 높은 재가자들도 청강생으로 참여해 내전 공부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불학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1~2기 당시에는 육군 소장과 명문대 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하기도 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이후 2011년 조계종 교육원의 승가교육개편이 이뤄지며 불교서울전문강당은 서울불학승가대학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특성화된 전문대학원과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등이 만들어지면서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입학 수요자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실제 5기 이후에는 급격히 졸업생 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교육원은 7기를 마지막으로 폐교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정규 조계종 교육원 교육팀장은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학당으로 시작된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서울 · 경기 전문 학문불전 공부 열기를 견인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22개 전문승가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원이 전문교육기관은 직영하는 것보다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지난 14년 간 2년 단위로 학사운영을 진행했고, 총 7기의 졸업 · 수료생이 배출됐다. 총 졸업 · 수료생은 286명(출재가 포함)이다.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 대학원장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스님은 "처음에는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출가자 감소와 내전 공부에 대한 열기가 줄면서 입학자가 많이 줄었다. 아쉬운 일이다"며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이렇게 마무리 되지만, 전문 한문불전을 공부할 수 있는 강좌와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쉬운 것은 졸업생들도 마찬가지다. 7기 찰중 소임을 맡았던 대웅 스님은 "현대적으로 불교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아졌지만, 전통 방식으로 불전을 볼 수 있는 곳은 몇 곳이 되지 않는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그중 한 곳"이라며 "재가자들의 열기도 높았던 것이 인상깊다.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는 게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군승으로 참여한 지안 스님(공군 3여단 호국흥익사 주지)은 "처음 강의를 들을 때에는 천안 부대에서 근무해 휴가를 내고 올라와 참여했다. 정작 휴가가 필요할 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문 한문불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더 기뻤다"고 밝혔다.

마지막 재가 수료생 2인 중 한 명인 김진숙(서울 강남구 · 50) 씨도 "한문불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곳은 많지 않다. 한문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소개 받아왔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며 "전문적인 한문 불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계기들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숫자로 본 서울불학승가대학원

- 14년 — 2003~2017년 운영
- 7기 — 2년 단위 학사. 7기 배출
- 286명 — 출 · 재가자 총 졸업 · 수료생

2003년 '불교서울전문강당' 시작
14년동안 7기, 286명 졸업 · 수료
서울 · 경기서 내전 공부열기 견인
재가자도 청강생 참여해 탁마키도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 '퇴역'
"전통 방식 내전 공부 관심 갖길"



사진 오른쪽부터 이날 법회에서 입정 중인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 간사장 이원욱 의원, 국회직원불자회 손충덕 회장의 모습.

국가안정의 길 찾는 좌선 삼매 '눈길'

2월 1일 국회 정각회 정각법회 개최

정국이 요동쳤던 2월 1일, 국회 지하 정각선원에서는 정각회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진행된 법회에서는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간사장 이원욱 의원과 손충덕 국회직원불자회 회장 등 직원불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각법회가 열린 시각, 국회에서는 반기문 前 UN사무총장의 국회 예방에서의 급작스런 대선후보 사퇴 선언이 있었으며, 이런 상황으로 정각법회에도 국회의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이날 법회에서 주경 스님은 "신출가, 심불출가라는 말이 승가에 있다.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세속에 있는 이들을 칭하는 말"이라며 "반대로 재가자에는 신불출가, 심출가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다. 몸은 비록 세속에 있지만 마음은 출가자와 같도록 하자"고 말했다.

주호영 정각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정치인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국가 안정과 화합,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정각회원들도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박유하 1심 무죄 "반인권적 판결"

나눔의집 강력 반발… 검찰, 1월 27일 항소장 제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씨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집이 "공정하지 못한 반역사 · 반인권적 판결"이라 항의했다.

나눔에집 측은 1월 25일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고 박유하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정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자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반역사적 · 반인권적 판결"이라며 "관련 민사재판에서 사실적시라고 인정한 부분들을 모두 '의견표명'이라 치부했다. 박유하의 29개 표현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기 힘든 '의견표명'이라 했으며 나머지 5개만 사실적시로 인정했다. 5개 표현마저 할머니들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반발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1심 선고에 불복, 1월 27일 박 교수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상태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서 진행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천태종, 제16대 종의회 원구성 마쳐

의장 도원 스님 · 부의장 세운 스님 · 김우영 의원 선출

천태종이 제16대 종의회 원 구성을 마쳤다. 의장에는 도원 스님이, 부의장에는 세운 스님과 김우영 재가의원이, 총무분과위원장에는 도웅 스님이, 법제분과위원장에는 진덕 스님이, 재무분과위원장에는 보광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천태종 종의회는 1월 26일 단양 총본산 구인사서 제102차 임시종의회 및 제16대 종의회 개원종의회를 열고, 신임 의장단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종의회 의원은 비구스님 16명 · 비구니스님 3명 · 재가불자 11명 등 총 30명으로 종헌 제63조 1항에 의거해 전형위원회서 선출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청년 고민, 불자들과 함께 해결해요”

취준생 보살핌·커플 맺기 등 청년대상 프로그램 인기

청년 취업난 등으로 3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불교계의 다양한 자비행이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위치한 곳이다. 이런 기업들의 다양한 업무능력 개발 강좌도 곳곳에서 열린다. 강남에 위치한 보림선원(선원장 일선행) 서울선원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 삼성과 LG 등 대기업 내 취업면접 준비 및 직장 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총 수업시간은 20시간으로 매주 수업시간은 신청자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수열 경영학 박사를 초청해 아시아코치센터의 5R코칭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커리큘럼이 이뤄져 있다. 교재비 외 모든 진행 비용은 선원이 부담한다.

보림선원 측은 “최근 청년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이런 강좌를 마련했다. 코칭은 개인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기업 측에서 관심 갖는 분야”라며 “이와 관련된 수업 이수가 취업 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02)3452-3033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에서는 미혼 청년들의 인연을 맺어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바로 인연만들기 프로젝트 ‘시절인연’이다. 2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안국역에 위치한 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열리는 ‘시절인연’에서는 30대 미혼 청년불자들이 사찰음식을 만드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소화한다.

대상은 78년생 이하 미혼 청년으로 구글과 카카오톡(@조계사청년회) 등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추첨을 통해 남자 12명과 여자 12명으로 성비를 맞추고 커플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2월 8일까지다.

서울 보림선원 코칭강좌

서울 조계사 청년인연맺기

광주 증심사 고시촌 밥상

대불련 상담템플스테이도



지난해 실시된 조계사청년회 주최 인연만들기 프로젝트 ‘Happy 佛렌타인 Day’

사진출처=조계사청년회 페이스북

한정민 청년회장은 “2016년 발렌타인데이에 진행한 커플 프로그램의 호응에 힘입어 더욱 알차고 재미있게 구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함께 부처님 도량에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02)735-3724

광주 고시촌으로 불리는 광주 동구 대의동 일대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따뜻한 불자들의 보시행이 펼쳐진다. 이 지역은 공무원 시험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은 곳이다. 대의동에 마련된 빛고을사찰음식체험관에서는 자비신행회와 증심사, 그리고 정안사가 힘을 합쳐 100명의 2~30대 청년에게 무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고민하는 청년들은 ‘어머니’와 같은 사찰신도들이 마련한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먹고 다시금 힘을 찾는다. (063)271-3555

불자 대학생들의 신행연합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새내기 대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충주 석종사에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너의 템플스테이’가 그것이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사찰문화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와 학업성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배 대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경수 대불련 중앙회장은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 선배들의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달리 차담 등 소통의 자리를 보다 많이 배정했다”고 밝혔다. (02)732-0239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90년 前 경주 불교 문화재들의 본 모습

경주학硏, 1920~30년대 유리건판 사진 700점 공개

약 90년 전 천년고도 경주 불교 문화재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진들이 대거 공개됐다.

경주학연구원(원장 박임관)은 “일본 나라시 아스카엔(飛鳥園)에서 보관해 오던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의 한국 관련 문화재 유리건판 필름 700여장을 재촬영해 공개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일본인 노세 우시조(能勢丑三, 1889~1954)가 일제강점기에 경주 등지를 방문해 유리건판에 남긴 이 사진은 당시 우리 문화재의 정비되기 전 실태를 확인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경주학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아스카엔 측과 교섭한 끝에 지난해 12월 유리건판 3700여장을 복제 촬영했다. 이 중 700여장이 한국과 관련한 사진과 실측도면이다.

노세 우시조가 경주 문화재에 대한 사진을 남기게 된 경위는 1926년 경주 서봉총 금관 발굴 현장을 찾은 스웨덴 황태자 구스타프 아돌프 수행단에 참여하면서부터다.

당시 교토제국대학 공학부 건축학교실 조수였던 그는 경주의 문화유산에 흠뻑 빠지게 된다. 특히 십이지신상에 매료돼 12지와 관련된 국내 유적지는 모조리 찾아다니며 유리건판 사진으로 남겼다.

이번에 소개된 사진을 보면 1928~1931년 원원사(遠源寺) 터에 완전히 붕괴된 채 벼랑 아래로 방치돼 있던 삼층석탑재를 수습하고 탑지를 발굴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복원하는 모든 과정을 도면과 함께 유리건판으로 남겼다. 이에 대한 관련 사진만 300여장에 달한다.



1928년 노세가 경주 황복사지 석탑을 촬영한 모습.

그는 경주 황복사지 십이지상과 헌덕왕릉 십이지상을 수차례 걸쳐서 발굴조사를 했다. 예천 개심사지 석탑, 구례 화엄사 서탑, 경주시 미방리 폐동곡사지, 암곡리 무장사지 등의 십이지상을 최초로 주목한 것도 노세 우시조였다. 또 경주의 십이지상뿐 아니라 개성의 고려시대 왕릉 및 중국과 일본의 십이지상을 망라해서 비교 검토했던 것도 그의 연구업적이다.

경주학연구원은 “이번 사진자료 발굴은 지금처럼 정비·복원되기 이전의 신라 왕릉 옛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라면서 “일제강점기의 경주 유적이 처한 상황을 입증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향후 문화재 연구를 위해 보고서 발간 및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 16권 발간

업~ 위의당불, 7944항목… 2022년 완간 목표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1932~2012)이 설립한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지난해 불교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 제16권〈사진〉을 발간했다.

〈가산불교대사림〉 제16권의 표제어는 업(業)부터 위의당불(威儀幢佛)까지로, 7944항목이 수록됐다. 대표 항목으로는 업(業)·여래(如來)·연기심심(緣起甚深)·염화미소(拈花微笑)·오교십리(五敎十理)·오분법신(五分法身)·오지(五智)·욕계(欲界)·운문사(雲門寺)·위의(威儀)의 등이다.

원고 분량만 2만 매, 4X6배판 1600면에 달한다. 작업 참여 연인원은 1만 4600명에 이르는 대작업이다.

〈가산불교대사림〉은 불교사상 및 문화 일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불교사전의 범주를 근본불교술어는 물론, 범불교권 국가에서 특수하게 변형·토착화되거나 새로이 창출된 각종 술어도 포함했다. 표제어의 한글 순은 물론, 내용 기술에 있어 실질적인 한글화를 도모해 누구나 쉽게 활용가능한 대중적 사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대작불사는 지관 스님의 원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스님은 1982년 ‘불교대사전편찬발원문’을 짓고 편찬작업에 들어갔다. 1991년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해 1999년부터 1~2년에 한 권꼴로 〈가산불교대사림〉을 출간했다.

하지만 지관 스님은 전체 20권으로 기획된 〈불교대사림〉의 완간을 보지 못한 채 제13권 작업을 끝으로 2012년 1월 입적했다. 마지막 ‘ㅎ’ 항목까지 15만 개에 달하는 주요 표제어에 대한 원고를 만년필로 원고지에 직접 써서 마무리해둔 상태였다.

〈가산불교대사림〉은 본책 20권, 색인 1권, 보유 1권 총 22권의 발간을 목표로 편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2019년까지 본책 20권을 펴내고, 2022년 색인 및 연표부·보유편 2권을 출간해 총 22권의 ‘가산불교대사림’ 편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대중공의 따라 총무원장 선거 혁신해야”

불시넷, 1월 31일 성명 발표

지난해 불교계에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키 위해 대중공의에 귀기울여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불교청년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불교환경연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지원, 이하 불시넷)는 1월 31일 성명을 통해 오늘날 탈종교화 시대서 불교내 혁신을 위해서 대중공의에 주저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불시넷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종교인구 비율이 52.9%에서 43.9%로 줄어들고, 특히 불자수가 300여만 명 감소한데 대해 “종교지형 변화의 양상이 확인된 만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불교가 왜 시민들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근원적으로 돌아봐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해 불교공동체는 동국대 사태, 용주사 문제, 종단 내 언론 문제 등 끊임없는 내홍을 앓았지만 무엇 하나 해결된 것 없다. 미래세대위원회 신설·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등 대중공사서 모아졌던 대중들의 뜻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모아진 공의를 이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대중공사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총무원장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대중공사를 통해 ‘사부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참종권의 획기적인 확대가 다수 종도들의 뜻임을 확인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 종회서 상정된 총무원장 직선제가 이월되고 총무원장 직선특위위원장 및 선출제도혁신특위원장이 모두 사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종교지형변화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폐단 줄인 선거제를 만들자”

그러면서 “대중공사에 참여했던 종도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선거의 폐단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대중공의를 반영할 바람직한 선거제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종단이 최근 구성한 백년대계본부도 사부대중의 지지와 참여 속에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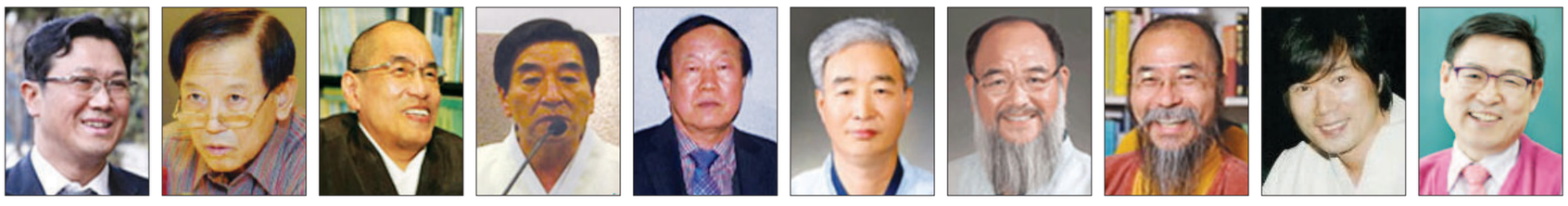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2월23일~6월 22일, 매주 목(木)18:40~21:30/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3월 2일(목) 17:30~ 공개강좌 2월 23일 (목) 18:30 등록금 240만원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심화과정 FCA현대사주학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장소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www.gfca.kr ※문의 : 02-3443-4984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일 주 문



백남준 11주기 추모재

원명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2월 1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故백남준 11주기 추모재를 개최했다.



수덕사 합동정초방생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2월 16일 남원 실상사에서 본말사 합동 정초 방생을 진행한다. (041)330-7700



전국비구니회 운영위

육문 전국비구니회장 스님은 2월 21일 오후 1시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 대강당서 제2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숲힐링문화협회 고문 위촉

종수 한국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스님은 1월 21일 사단법인 숲힐링문화협회 신년회에서 고문으로 위촉됐다.



참불선원 불상 점안식

각산 참불선원 선원장 스님은 2월 17일 참불선원에서 해인사 보광스님, 석종사 회주 혜국 스님을 초청해 불상 점안식을 봉행한다.



청주불교연합회장 취임

현진 청주 마야사 주지 스님은 2월 2일 청주썬프라자 1층서 열린 신년법회에서 청주불교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양천불교연합회 신년하례회

탄웅 양천불교연합회장 스님은 2월 2일 서울 국제선센터 대적광전에서 양천불교연합회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문화예술진흥상 수상

하복희 화백은 1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인물대상&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진흥상'을 수상했다.

인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원 보직

△ 불교문화대학원장 및 불교문화대학장 김성철
△ 경영대학원장 겸 경영계열학장 문태수
△ 비서실장 강법주
△ 기획처장 류완하
△ 교무처장 겸 학부교육선진화사업단장 구본철
△ 산학협력단장 겸 산학협력지원센터장 김상욱
△ 평생교육원장 겸 생태교육원장 강태호
△ 교육역량개발원장 김수동
△ 산학협력단부단장 겸 벤처창업보육센터장 유주한

"쓰레기 줄이기 등 생활실천운동 전개"

Interview

천태종 삼광사 제11대 주지 세운 스님



"쓰레기 줄이기 등 생활실천의 '새불교운동'을 통해 영남불교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삼광사와 종단의 주경야선 수행종풍도 바로 세우겠습니다."

2월 1일 삼광사 제11대 주지로 취임한 세운 스님이 생활실천형 새불교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2월 1일 삼광사 불교문화회관에서 '제11대 주지 세운 스님 진산식'을 개최했다.

세운 스님은 대중에게 "불자라면 실생활에서 불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생활불교를 실천해야 한다"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발우 공양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국가경제와 지구환경보존, 수행 증장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금주, 금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사회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가장 먼저 삼광사를 시작으로

조직력 강화, 생활불교 실천
다양한 법회·기도·강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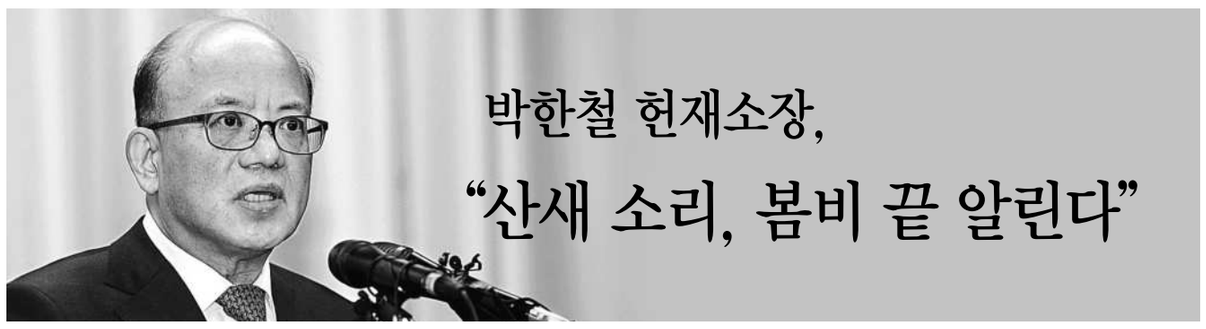
시민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스님은 "이러한 운동은 각 가정에서는 작은 실천일지 몰라도 사회와 국가에 확대됐을 때 파급효과가 크다"며 "'나부터 먼저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운 스님은 조직 시스템 정비 및 법회, 기도, 교양 강좌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다짐했다.

스님은 "삼광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님과 간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의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통해 포교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신도들이 간부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중불교를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상월 원각 대조사께서는 승속이 함께 사찰을 운영하는 '새불교운동'을 천명하셨다. 생활불교, 대중불교, 애국불교를 종단의 3대 지표로 공포하시고 불교 사상에 입각해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주셨다"며 "이런 불교사상이 아니면 개인과 가정, 나라의 발전도 없고 인류를 위한 불국토를 이룰 수 없다"며 새불교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세운 스님은 1978년 천태종 제2대 종정 대충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금강대 국제선원 선원장을 역임했으며, 인천 황룡사 주지, 언양 양덕사 주지로도 활동했다. 천태종단에서는 금강대학 사무과장, 총무원 교무부 교무과장, 교무국장, 의전국장, 책임부전, 법사, 총무원 총무부 인사국장, 교육부 부장, 제13, 15대 종의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부산=하성미 기자



박한철 헌재소장, "산새 소리, 봄비 끝 알린다"

31일 퇴임식서 禪詩로 심경 밝혀… "탄핵심판 조속히 결정"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 심경을 선시(禪詩)를 통해 밝혔다.

1월 31일 퇴임식을 가진 박 소장은 퇴임사의 마무리를 '몽과비란상벽허(夢跨飛鸞上碧虛) 꿈 속에 난새를 타고 푸른 허공에 올랐다가/ 시지신세일거려(始知身世一邊廬) 비로소 이 몸도 세상도 한 움막임을 알았네./ 귀래착인한단도(歸來錯認邯鄲道) 한바탕 행복한 꿈길에서 깨어나 돌아오니/ 산조일성춘우여(山鳥一聲春雨餘) 산새의 맑은 울음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라는 선시로 갈음했다.

박 소장이 인용한 선시는 중국 송나라 고승 대혜종고(大慧宗曠)선사의 〈서장〉에 수록된 것으로 시의 작자는 진국태부인(秦國太夫人)이다.

그녀는 30세에 미망인이 돼 40여 년을 불교 수행을 하며 살았고, 이참정·유보학과 함께 대혜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는 3인 중 한 명이다.

이와 함께 박 소장은 퇴임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남기고 떠나는 미안함과 아쉬움도 피력했다. 박 소장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심 높은 불자로 알려진 박 소장은 2009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재단법인 법보선원에 당시 시세로 9억6800만원인 아파트를 기부했다. 당시 법보선원은 강화도에 요양병원 불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 불사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희사한 것이다.

실제,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잠시 보관하고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신만의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 소장은 1975년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병으로 입대,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뒤 일반 직장에 다니다 1981년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지검 검사와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천지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울산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검찰 내 선두주자로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성민 기자

"성철 스님 가르침 되새기자"

백련문화재단, 2일 조계사서 〈성철평전〉 봉정



백련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2월 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의 큰 스승 성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성철 평전〉을 봉정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봉암사 결사 70주년을 맞은 올해 성철스님의 첫 평전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세배 하며 복지 증진 서원을

2월 2일 서울 미타사 정수암서 세배법회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과 연꽃어린이집 임직원 60여 명은 2월 2일 서울 미타사 정수암서 새해맞이 세배법회를 봉행했다. 관장 상덕 스님은 "개관 19주년을 맞이한 복지관이 새해에도 불교 사회복지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승희 기자

생일맞이 지역 나눔공양

임승만 회원, 2일 나눔공양 2,000명 분 후원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2월 2일 임승만(88) 회원 생일을 맞아 나눔공양을 진행했다. 나눔공양은 서울노인복지센터 후원사업 일환으로 후원자 본인·가족 생일을 맞아 회원들에게 식사·간식을 대접하는 행사로 이날 임승만 씨는 후원을 통해 2,00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임승만 씨는 "2004년 처음 방문 후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매일 나오고 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들과 깊은 우정도 쌓았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연수 과정 인증

에니어그램에 기초한 고집멸도 명상심리상담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특징: 불교 명상법 + 서구 심리학 / 소수의 인원으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 / 전문 상담가로서의 자질 향상 / 상담의 기술 훈련 / 자기 성찰과 영적 성장

세부안내
▶ 일 시 : 2017년 3월 22일(수) ~ 3월 24일(금) 2박 3일
▶ 장 소 : 명상심리상담센터 쉼 (대한불교조계종 봉불사)
▶ 동 참 금 : 25만원 (숙식 제공)
▶ 모집인원 : 20명 이내
▶ 신청방법 : 연수비 입금 후 전화 접수 061)454-2303, 010-4115-2303 (지오스님)
농협 302-1027-7971-31 (예금주 : 서미자)
▶ 특전사항 :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인경스님) 자격연수 인정
조계종 승려 연수 교육 인정서 발급

일 정 표

3월 22일 (수요일)	3월 23일 (목요일)	3월 24일 (금요일)
• 입제식 (오후 1시)	• 오전 9시 - 호흡과 느낌 명상하기 (4) 나의 자아 개념 탐색하기 • 점심공양 (12:00 ~ 14:00)	• 오전 9시 - 호흡과 느낌 명상 (8) 고집멸도와 실천 계획 세우기 설문조사와 수료증 배부
(1) 성격유형 검사와 에니어그램이란? (2) 불편한 경험 나누기 경청과 되돌려주기 • 휴식과 저녁 공양(17:00 ~ 19:00)	(5) 에니어그램의 불교적 이해 (6) 동기 - 원인 탐색하기 • 휴식과 저녁 공양(17:00 ~ 19:00)	.
(3) 나의 대인관계 방식 이해하기	(7) 그림 그리기와 스토리텔링	.

• 주최 : 명상상담평생교육원 • 주관 : 명상심리상담센터 쉼
• 대한불교조계종 봉불사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동암길 29-18) • 전화 : ☎ 061-454-2303

서울 금강불교대학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초급과정	1년	불교학개론, 불교입문 천태종사, 심리상담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9:00 ~ 20:20 · 2교시 : 20:40 ~ 22:0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1년 20만원
	중급과정	1년	금강경, 불교의 신해 법화경, 대승불교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교법사과		2년	육묘법문, 비교종교론 천태소지관, 기신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학기당 20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23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 접수 : 2016년 11월 11일(금)~ 2017년 2월 17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7년 2월 19일(일) 오후 3시 • 장소 : 관문사 2층 면접실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 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3460-5323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T에서 하차)

서울 金剛佛教大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300만 불자 감소 정부조사 맞을까

Fact Check Q&A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식 논란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서 10년 전 대비 불교인구가 약 30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계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천주교 역시 110만 명 가까이 줄어들고, 무종교인이 56%를 기록하며 탈종교화 현상을 실감케 했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12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새로 도입된 조사방식에 종교계 의문이 제기됐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서 표본에 대해 인터넷 · 면접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조사방식을 두고 불교계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항의했다. 통계청은 "20% 표본조사는 전수조사에 가깝고 오차가 매우 적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논란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에 인구주택총조사에 적용된 조사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면서 종교분야 유 · 불리 여부, 조사결과 정책 활용 여부, 해외사례 등을 알아봤다.



종교별 성적표 '인구통계'

탈종교화 함께 불자 대폭 감소
개신교에 종교인구 1위 내줘
불교계, 조사방식에 의문 제기

Q1. 조사방식 불교계에 불리한가

표본 수만 1000만 명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 표본조사는 통계학계서도 오차가 없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 논란의 핵심은 전수 · 표본조사 방식이 아닌 인터넷조사와 면접조사가 함께 활용됐다는 점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통계청 회신자료에 따르면 인구 4905만 명 중 2717만 명이 인터넷조사에, 2188만 명이 면접조사에 응했다. 이 결과는 20% 표본조사 후 100%로 환산한 값이다.

조사방법별 응답 종교인구(비율)는 △불교-인터넷 385만(14.17%) · 면접 376만(17.72%) △개신교-인터넷 553만(20.36%) · 면접 414만(18.92%) △천주교-인터넷 221만(8.16%) · 면접 167만(7.63%) 명이다. 전체인구 대비 각 종교인구가 불교 15.53% · 개신교 19.72% · 천주교 7.93%임을 감안할 때 불교만 유독 인터넷 응답이 적고, 면접 응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홍엽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는 "인터넷과 면접조사 결과 합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하지만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질적인 결과값으로 평균을 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면서 "불교인구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극대화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Q2. 지역별 편차 원인 오리무중

이외에도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세가 가장 강한 영남지역 불자감소가 두드러졌고, 반대로 호남지역 불자감소율은 낮았다. 과거 통계와 비교했을 때 부산(10.7%) · 경남(10.7) · 울산(10%) · 대구(9.6%) · 경북(8.6%) 순으로 불교인구가 감소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이번 조사에서도 불교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불교세가 약한 광주(4.9%) · 전남(5.2%) · 전북(4.2%) 지역의 불자 감소율은 절반수준이었다. 인구가 가장 밀집한 서울과 경기도 역시 각각 6% · 6.1% 감소율을 보여 영남권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편차와 관련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표본조사결과 일반화과정서 나타난 오류일 수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김 교수는 "비율의 왜곡현상은 종교인구 추계가 잘못됐음을 시사하는 변화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Q3. 가구원 개별종교 반영됐나

인구주택총조사는 모든 항목에 대해 각 가구원별로 응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터넷과 면접조사 대부분 가구원 한 명이 대표해 응답한다는 점에서 가족 종교불일치에 따른 응답 오류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열린 신대승네트워크 토론회서 박수호 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가족 내 종교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서 가구주(대표자)가 가족 모두의 종교를 응답하는 방식이 의미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

개신교계 언론에 보도된 목회사회학연구소 분석결과도 비슷하다. 이 연구소는 "그동안 조사 응답에 많이 임했던 어머니들이 가정의 종교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청년 · 남성층이 인터넷 조사를 통해 응답하면서 다른 대답을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물론 전문가들의 이 같은 분석은 달리 해석하면 1985~2005년까지 총 3차례 걸쳐 실시된 종교인구조사결과에도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인구 1000만 명이라는 기존 결과 역시 허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Q4. 종교인구결과, 어떻게 활용되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조계종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통계청을 방문, 종교항목 공개 금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행보를 펼쳤다. 이를 두고 '부끄러운 민낯을 받아들이라'는 세간의 지적도 있으나 통계결과에 종교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각종 정책 입안과 예산 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주택총조사는) 다른 표본조사의 기본자료가 되고, 각종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에도 근간자료로 활용된다"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종교관련 사업에 이 같은 조사결과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했다.

정부 종교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 종무실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통계조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0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온 불교의 경우 전통문화보존의 역할도 크다. 정책 수립에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Q5. 해외 국가 종교인구 통계는

해외 국가들도 대부분 종교인구를 국가적으로 조사한다. 다만 몇몇 특수성을 가진 국가들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진구 종교문화비평 편집위원장의 1월 17일 한국종교문화연구원 칼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종교 여부와 종류를 묻는 행위 자체가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 차원의 종교인구 조사를 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민간 차원의 전문조사 기관들이 종교인구 관련 표본조사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관련 종교학자나 연구자들도 이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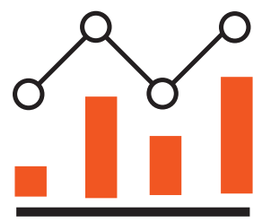
기독교와 무슬림이 양립하는 레바논도 종교인구 조사를 하지 않는데, 이는 개인의 종교 자유보다 정치적 요인이 크다.

통계결과가 어떻든 종교인구가 감소한 각 종교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연성 · 견성종교 견해부터 각종 범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적극적인 대사회활동 등을 주문한다. 불자들의 결속력과 네트워크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모두 옳은 지적이고 제안이다. 이제 단순히 전수조사라는 믿음 아래 외쳐온 '1000만 불자'는 접어두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때다. 다만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종교인구 조사는 '각 종교계의 성적표'라는 꼬리표가 붙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민감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게다가 향후 10년간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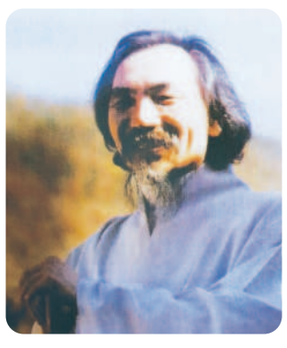
불교, 자성의 목소리 높아

"민낯 받아들이자" 지적 多
'1000만 불자' 외침 뒤로 한채
미래대안 모색 · 실천 나서야



봉 봉암당 대희개사 다례대전 행

조선불교 중흥율 제6세이시며 민족대표 백용성조사의 은 · 법 · 강 · 율의 상좌로서 기사 11월 3일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선구자이신 봉암당 대희개사 열반42주년 다례대전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각 문파의 어른스님과 대덕스님, 석가산 대장로의 문도님께서는 무루 예참하시길을 합장합니다.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2월 15일 (음, 정월 19일) 수요일 10시**
● 장 소 : 진천 원융호국사

석가산대장로 문도회 회장 석적연 화남

부처님 진신사리 출현

화엄경 사경공덕으로 천상에서 사리를 공양 받다

석가산대장로 화엄경 65권 사경 중 원융호국사 부처님 손에 부처님 진신 혈사리 2과 출현 정유년 1월 초3일 봉암개사 열반42주년 다례대전에 참석한 현헌 이동헌처사님께서 꿈에 현몽 받아 발견하고 직접 촬영한 모습.

화엄경65권 此一切工巧大神通智光明法門 (이는 일체가 교묘한 대신통력의 지혜 광명법문이다.)하는 대목을 사경중에 현헌처사가 발견 촬영하였다.



저희들의 큰스승이신 석가산대장로께서는 경전결집의 대서원을 세우시고 폐관 · 묵언 · 장좌불와 · 일자일배를 하시면서 대방광불화엄경 80권과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을 세존응화 3022년 10월 6일에 제일차 사경을 원만회향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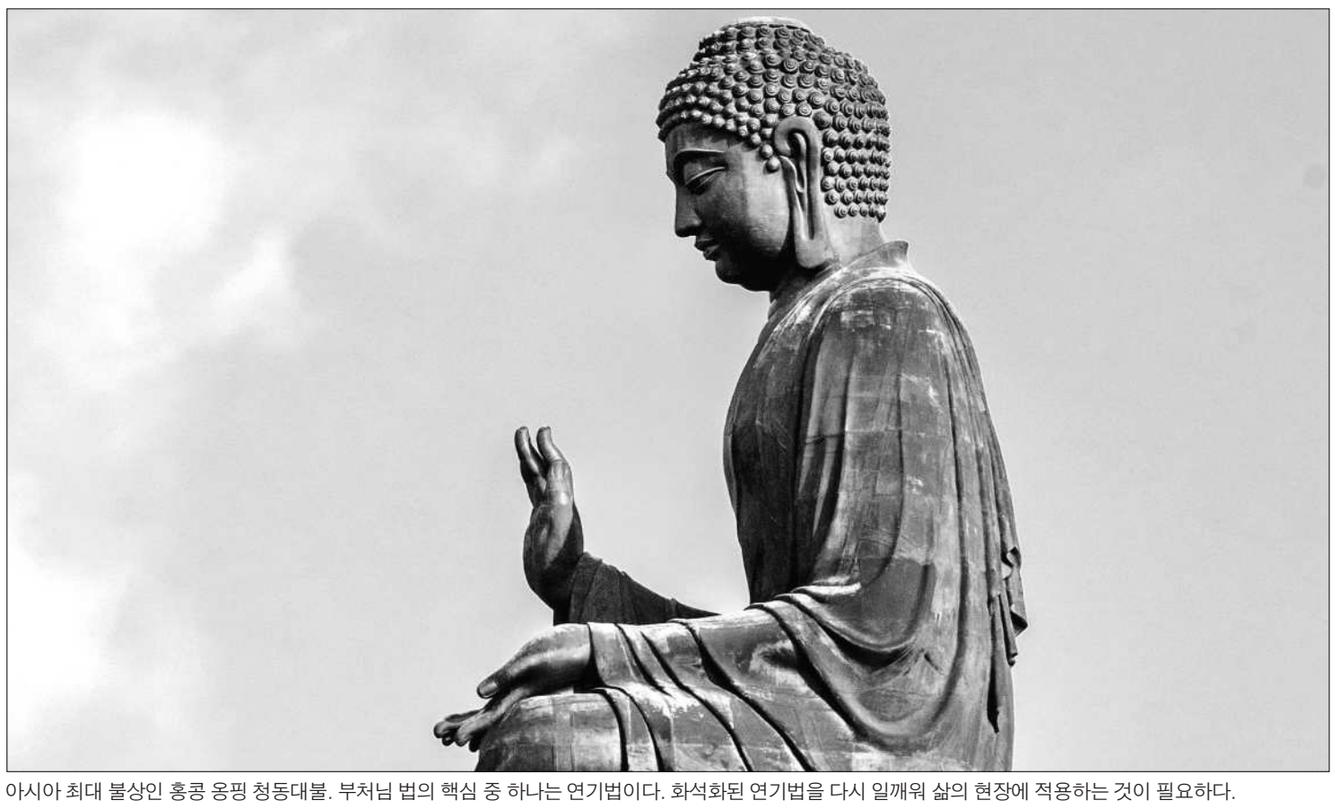
저희들의 큰스승이신 석가산대장로께서는 무진한 서원과 대정진력으로 노구를 이끄시고 목우한실 폐관하시어 묵언을 하시며 제2차 80화엄사경을 입제하신지 233일에 화엄경 65권 중, "이는 일체가 교묘한 대신통 지혜광명법문이다."라는 경문을 사경 하시자 현몽을 받은 마을상좌 현헌처사가 원융호국사에 도착하여 대장로에게 현몽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대웅전 부처님의 손에서 부처님의 진신혈사리 2과를 발견하고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80화엄경을 2번씩이나 사경하시는 석가산 대장로의 원력을 찬탄하고 공덕에 감응하여 세계불교 역사상 최초로 하늘나라 범천왕께서 부처님 진신혈사리 2과를 공양한 것 입니다.

불교 철학 Essay
붓다 찾는 천로역정

"21세기 연기법의 깃발은 어디있는가"

④ 연기법의 새로운 창발의 길을


아시아 최대 불상인 홍콩 옹핑 청동대불. 부처님 법의 핵심 중 하나는 연기법이다. 화석화된 연기법을 다시 일깨워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기법은 불교 사상의 출발점이다. 불교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 접하는 것이 바로 연기적 인과론이다. 연기법에서 무아와 공의 사상이 나온다. 붓다가 밝혀낸 연기법은 경이롭고 위대한 사상이다. 인류 정신사에 이런 엄청난 사례가 어디 있었던가? 초월적 대상에 대한 신앙 없이 연기법이 토대가 되는 종교가 지구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가.

이러한 연기법에 대한 나의 찬탄은 결코 오래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연기법을 덤덤하게 바라보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대 학문을 배우고 인과론적인 자연과학 방법론의 틀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연기론에 쉽게 친화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연기론의 큰 바다를 모르고 개울가에서 어슬렁거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 붓다의 제자 '아난다'도 연기법의 심심 미묘함을 모르고 "너무 간단합니다"라고 했다가 꾸중을 들은 사례가 있지 않은가. 내가 바로 그 아난다였다.

내가 연기법의 큰 뜻을 체감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원 시절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 theory)'을 배우는 과정에서다. 일반체계이론은 오늘날 '복합체계이론'으로 확장되어 불린다. 오늘날 복합체계이론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포괄하는 연구방법론으로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 복잡계 이론의 대두는 비결정론적 세계관의 부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카오스 이론과 노벨화학상을 받은 프리고진(Iliya Prigogine)의 자기 조직화 이론은 복잡성 과학의 이론적 토대로 대변되고 있다. 카오스 이론은 비가역적이고, 비결정론적이며, 혼돈적인 자연현상에서 질서를 찾는다. 프리고진의 사상은 흔히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말로 대변된다. 프리고진의 저작 〈있음에서 됨으로(From Being to Becoming)〉에서 '있음'의 세계는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이고 '됨'의 세계는 진화론적, 유기체적, 비결정론적이다.

복합체계이론을 보면 붓다의 연기론의 냄새가 물씬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체계이론에 관한 원서들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체계이론 학자들이 붓다와 불교에 대해 매우 친화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오랫동안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연기적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운동을 하는 분도 있다.

복합체계이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모든 실재와 현상은 무수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의 집단으로, 각 요소가 다른 요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각 부분의 총화 이상으로 다이나믹한 자기 조직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합체계이론은 붓다의 연기론을 오늘날의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틀에 의해 재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500년 전에 붓다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까? 복합체계이론은 생물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등 현대 자연과학의 발달을 통해 정립된 이 시기의 첨단 이론으로서 다양한 논증이 일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론이다. 아득한 2500여 년 전 붓다는 수행의 과정에서 깨달음으로 연기의 다르마를 발견했으니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이러한 붓다의 연기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계속 내용과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왔고 그 방법도 매우 정교해졌다. 연기론도 시대의 요구와 연기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붓다 입멸 1500년이 지난 후 연기론의 생동감이 사라졌다고 한다. 현응 스님은 〈깨달음과 역사, 발간 2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통해 연기론의 화석화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AD 7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1400년 동안 기존 연기론의 수준에만 머문 불교인들의 태만을 나무라고 있다. 그런데 박물관의 조각품처럼 형해화 된 연기론이 21세기에 불교 이론이 아닌 복합체계이론에서 새롭게 꽃을 피우고 있으니 어인 일인가?

연기론을 일반체계(복합체계)이론으로 분석하여 불교 사상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도 많아지고 있다. 체계이론의 틀에서 보면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주변 세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와 정보의 변형이다. 그래서 자아는 변하지 않는 개별체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어빈 래즐로(Ervin Laszlo)라는 학자는 저서 〈Introduction to Systems Philosophy〉에서 생명 형태(life-forms)들이 생존하고, 적응하고, 상호 연결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스스로를 조직하는 상황을 '열린 자연 시스템(open natural system)'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존재의 연기론적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연기의 광장으로 본 것이다.

연기의 광장은 울타리가 없는 광장이다. 실재는 역동적인 상호의존적 과정으로 나타난다. 모든 요인들은 불변하거나 자율적인 요소나 본질이 아니라 상호인과적인 상호연결망 속에서 존속한다. 붓다의 연기론은 인과 관계를 내재하는 어떤 힘의 기능이 아니라 관계의 기능으로 접근한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나 결과는 결코 예정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들은 다양하며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붓다의 연기론은 인과율을 안고 인과율을 뛰어 넘는다. 연기론은 인과율에 대한 논의를 양극화했던 결정론과 불확정이라는 입장 사이에서 중도를 제시했다고 본다. 중도의 길은 양 극단의 이항대립을 넘어 더 깊고 더 먼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다.

> "연기법을 체감하는 것이 공명
> 생활하고 실천하는 삶이 요동
> 그 요동이 바로 자비행이다.
> 개인과 사회변화의 변증법을
> 붓다의 연기법서 찾아야 한다."

나는 지금도 연기적 인과론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연기적 인과론을 공부하고 생각할수록 그 심심 미묘함에 현기증을 느낀다. 깨달음의 탈신비화와 불교의 사회적 사명을 강조한 현응 스님의 〈깨달음과 역사〉는 나의 불교 공부에 많은 도움과 시사점을 주었다. 현응스님은 깨달음을 연기성과 공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초전법륜(初轉法輪)의 예를 들고 있다. 〈깨달음과 역사〉의 내용에 대해 깊이 공감하나, 연기법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긍정하기 힘들다.

나는 붓다의 초전법륜에서 붓다의 깊은 고뇌를 느낀다. 붓다는 성도 후 옛 도반들에게 전법을 하기 위해 250킬로미터가 넘는 '바라나시'까지 간다. 당시의 교통 사정을 생각하면 엄청 먼 거리라 할 수 있다. 그 먼 곳 까지 가는 것은 붓다의 다르마를 옛 도반들은 그래도 이해하지 않을까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다섯 도반에 대한 설법 과정은 45년의 긴 전법 과정에서 제일 치열했다고 생각한다. 대기설법이 아닌 직접 화법으로 설법한 유일한 것이다.

붓다 자신은 탁발하지도 않고 도반이 차례로 탁발한 것을 먹으면서 연기론을 설득하였다. 며칠간의 설법과 토론과정을 통해 도반들이 연기론을 이해하고 받아 들였을 때 붓다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아라한이 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곧 이어 55명의 제자들을 얻게 되는데 이들도 단기간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경전에 전한다. 이는 붓다의 첫 제자와 붓다 학당 1기 졸업생에 대한 예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러한 생각은 나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나는 30여년 이상 '이해'한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직업으로 살아 왔다. 동시에 이해의 층위와 유형이 얼마나 다양한 것인가를 체감해 왔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아님을 알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했다고 착각도 했고, 또한 이해가 안됐는데 이해했다고 거짓 행동을 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학생들에게 미안한 짓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해'란 단어에 걸림이 많다. '이해'는 현재 진행형의 행위이고 이에는 항상 새로운 해석이 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이해는 '지적 수행의 과정'이다.

붓다의 다섯 옛 도반들과 붓다 학당 55명의 1기생들은 연기법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궁금하다. 연기법에 대한 이해 자체가 매우 연기적이기 때문이다. 시대와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후대의 붓다 제자들은 연기의 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설명하여 왔다. 문화의 유형과 수준, 사회구조의 변화, 시대적 요구 사항 등 다양한 연기적 조건에 따라 연기법의 구체적 내용은 달라진다. 그런데 그 생기발랄한 연기론이 화석화되어 버렸다고 한다. 오늘의 불교는 이미 화석화된 연기론을 1400여 년 동안 되새김질하고 있다고 하니 이는 붓다 다르마가 화석화되는 것과 같은 것이리라.

우리는 후기 산업화 사회를 넘어 지식정보화 사회로 명칭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종래의 삶의 양식과 사유의 패러다임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연기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연기론의 출발은 삶의 괴로움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발하였는데, 오늘날 삶의 괴로움의 영역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지구촌 전체로 확대되고 유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인간이 이 지구촌의 생명을 전멸시킬 수 있는 다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자연이 파괴되고 생물 종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가치관과 이념과 문화, 가치관의 싸움은 도처에서 횡행되고 있다.

이 시대의 연기법은 새로운 창발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연기론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 있는 복잡계 이론이 주는 시사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를 설계하고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직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설계나 제어라는 발상은 마치 기계를 만들 때의 공학적 발상과 같은 것이다. 이와 달리 창발성은 자기 조직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진화(co-evolution)' 현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공진화란 각 요소나 주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자기 조직화를 촉진하는 것이 개체의 '공명(共鳴)'이다. 시스템 전체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모든 구성원에 전달되고 공유됨으로써 개체와 개체간의 공명이 일어난다. 이러한 공명을 통해 작은 '요동(Fluctuation)'이 일어나고 이 작은 요동이 큰 변화를 가져 오는 출발점이 된다. 이것은 카오스 이론의 '나비 효과'나 '갈매기 효과'와 같은 것이다.

세상을 연기법으로 체감하고 공감하는 것이 공명이고, 연기법의 틀에서 생활하고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요동이다. 그 요동이 바로 자비행이라고 본다. 이제 연기법이 바람직한 21세기 사회 구현을 위해 지구촌이 새로운 자기 조직화를 일으키는 데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과 사회변화의 변증법을 붓다의 연기법에서 새롭게 찾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연기법의 깃발은 어디에 있는가? 용맹정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화두이다. 용맹정진의 장소는 밀폐된 선방이 아니라 바로 중생의 삶의 현장이다.



방영준(성신여대 명예교수)

출강 및 통신 2017학년도 제26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정명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6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7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 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수국사 극락구품도는 관경십육관도 가운데 아미타극락회를 중심으로 구품연못과 연화화생하는 과정을 9칸으로 나눠 그린 그림이다.



19세기 서울에는 상궁이 발원한 불화가 다수 제작되는데, 이 작품들에는 값비싼 금이 적극 사용됐다. 흥천사 아미타불도 역시 금이 폭넓게 사용된 작품이다.

화려함의 백미, 조선 왕실불화를 만나다

불교중앙박물관, 2월 1일~3월 31일 '서울지역 왕실발원 불화' 展

조선 왕실의 원당, 수국 · 흥천사
불화 및 복장물 총 63점 전시
최초 공개 불화 · 복장물도 다수
"숲 적극 사용한 조선 말기
불화 특징 엿볼 수 있을 것"

조선 왕실의 원당(願堂)이었던 수국사와 흥천사의 불화가 한 자리에 모인다. '서울지역 왕실발원 불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품엔 대중에 처음 공개되는 불화 및 복장물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은 2017 테마전 '서울지역 왕실발원 불화'를 마련하고, 2월 1일~3월 31일 수국사 · 흥천사의 성보문화재 21건 63점(수국사 19건 41점 · 흥천사 13건 13점)을 소개한다. 이 중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물 포함 38점과 흥천사 도량신도 등 5점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물은 2005년 개금을 위해 불상을 조사하는 과정서 51종 300여 점이 발견됐다. 당시 사기 7과가 안치돼 있던 후령통, 개금중수시의 원문과 발원문, 불교전적 16종 24점, 다라니 20점, 모시저고리와 직물, 보자기 등이 수습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밀교대장 권9〉(보물 제1580호)는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것이 실물로 확인돼 주목받았다. 그동안 세종실록의 기록만 있을 뿐 실물은 전해지지 않은 〈밀교대장 권9〉가 수국사 아미타불 복장서 발견된 것. 이밖에도 복장물서 발견된 판본 중 유일하게 금속활자로 인출된 경전인 〈금강반야바라밀경〉도 함께 전시된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수국사는 1459년(세조5년) 정인사란 이름으로 창건된 후 1471년(성종2년) 인수대비 후원으로 대대적 중창불사가 행해져 총 119칸의 대가람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1504년(연산군 10년) 화재로 소실되며 폐사 직전의 상황까지 갔으나, 1900년(광무4년)에 월초 스님에 의해 중창됐다. 고려시대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해 조선 말기 불화 등 많은 성보가 전해지고 있다.

흥천사는 조선 태조 6년에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위해 정릉을 조영하고, 그 원당으로 세운 절이다. 당시 170여 칸을 보유한 대찰이었으며, 억불숭유정책에도 불구 도성 내 건립된 기념비적인 사찰이다. 이후 고종 2년 흥선대원군이 대대적인 중창을 실시하기까지 '조선왕실의 원찰'로 자리매김했다.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말기 왕실발원 불화의 특징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 광배 안쪽 면을 금박으로 가득 채워 존상을 장엄할 만큼 금이 적극적으로 사용됐단 점이다.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학예팀장은 "고려시대엔 금니 작품이 성행했지만, 조선시대엔 불화에 금을 사용한 경우가 비교적 많지 않았다. 하지만 왕실 후원으로 조성된 불화가 가장 많은 조선 말기엔 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수국사 불화들은 1907년 여러 전각의 중창 후 일괄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왕실불화의 화려한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단 평을 받고 있다. 금니와 금박을 사용해 색채가 호화롭고 다채로우며, 구도는 안정감과 화려함을 동시에 뽐낸다. 대표적인 전시품은 수국사 십육나한도 · 아미타불도 · 신중도 · 현왕도 등이다.

또한 흥국사 불화들은 주로 왕실과 상궁들이 왕실의 안녕과 복을 빌기 위해 조성된 것들이 많다. 금이 활용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7호 흥천사 아미타불도(1867)를 포함해 지장시왕도(1867), 극락구품도(조선말-근대) 등 다양한 불화를 보유한다. 이 중 흥천사 아미타불도는 극락보전 불단 후불벽에 봉안된 작품으로, 19세기 중엽 경상북도 사불산 화파의 대표 화승 의운 자우가 보조화원 응완과 함께 제작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현조 스님은 "조선시대 통치이념은 유교로, 불교를 억압하는 '숭유억불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불교는 이 시기에도 왕실과 후궁, 비빈 등에게 신앙으로 유지됐다"며 "이번에 소개되는 조선 말기 왕실발원 불화를 통해 당시 왕실발원 불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천수경 정법계진언 '羅'는 오류, '邏'로 바꿔야"

세종 계룡사 회주 능현 스님, 본지 기고서 주장

화엄경 입법계품 근거해 분석
'42자문' 중 '邏자문'으로 봐야
이에 따른 해석 오류들도 지적

한국불교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 중 하나는 〈천수경(千手經)〉이다. 이 같은 〈천수경〉의 정법계진언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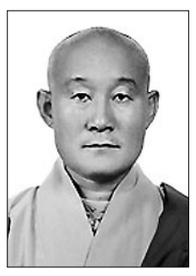
세종시 계룡사 회주 능현 스님〈사진〉은 본지의 기고글을 통해 "〈천수경〉의 정법계진언에 오류가 있고, 이에 따라 맞지 않는 한글 번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이 지적한 오류는 〈천수경〉 정법계진언의 첫 머리인 '라자색선백(羅字色鮮白)'으로, '라(羅)'를 '라(邏)'로 바꿔야 한다는 게 능현 스님의 주장이다.

능현 스님은 오류의 근거로 〈화엄경〉 입법계품 42자문을 들었다. '라자(羅字)'은 '아자(阿字)', '남자(藍字)' 등과 함께 42자문에 속한다.

스님은 "〈화엄경〉에서는 여섯 번째 '라자문'은 '라자를 부를 때 반야바라밀다문에 들고 청정함에 머물러 의지하며 일체법을 깨달아 세간의 미혹함에 물들지 않느니라'고 했다"며 "〈화엄경〉 입법계품의 42자문의 라자문의 '라(邏)'는 〈천수경〉 정법계진언의 '라'임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능현 스님은 '라'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은 후에는 해석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산 스님과 무비 스님의 해석을 분석한 스님은 "첫 구절의 '곱고 고운 빛으로 진언편 것이'라는 해석보다 '라자(邏字)는 곱고 고운 흰색이니'라고 함이 원문의 뜻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구절인 당가차자문(當加此字門, 마땅히 이 진언을 지송합니다)에 대해서는 "이 구절에는 진언도 지송도 없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문(字門)이며, 이는 〈화엄경〉 입법계품의 42자문 중 라자문을 이르는 문구"라며 "이에 따라 '마땅히 라자문에 이르면 씻어낼 것이니라'고 번역하는 게 바른 한역"이라고 밝혔다.

능현 스님은 "한국불교의 수많은 불자들이 〈천수경〉을 통해 신앙의 첫 걸음에 들고, 수행한다"면서 "정법계진언의 올바른 해석과 헤아림은 불교수행의 근원을 바로 잡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신진작가 6人 콜라보레이션

3월 23~26일 '청년불교미술작가전' 서

지난해 제4회 붓다아트페스티벌(BAF)서 첫 개최되며 청년 작가 등용문으로 주목받은 '청년불교미술작가전'이 2번째 막을 올린다.

'청년불교미술작가전'은 3월 23~26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서 개최되는 제5회 BAF서 열린다. 올해는 특히 한국 전통미술계 신진작가 6명이 '붓다의 일상'을 주제로 공동작업을 진행,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결과물이 선보여져 눈길을 끈다. 참여작가들은 앞서 2차례 걸쳐 기획회의를 여는 등 공동작업을 실시했다.

'붓다의 일상'이란 공동작업 주제는 2017서울국제불교박람회 주제인 '일상이 빛나는 순간, 수행'의 연장선상이다. 각 작가들이 부처님이 공양할 때 및 잠을 잘 때, 쉴 때 모습을 자기만의 상상력과 개성으로 표현했다.

참여 작가 중 도일 스님은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부처님의 천진난만한 모습, 데바닷다와 미친 코끼리의 일화, 자작나무 숲에서 산책하는 모습 등을 소개한다. 박진아 작가는 부처님이 세수하거나 사과 먹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전혜영 작가는 '부처님이 현대에 산다면'이란 상상을 토대로 작업을 펼친다.

아울러 6명 작가들은 공동작업 외에 개별 작품도 전시한다. 이재윤 작가는 '상원사 문수동자상'을, 이문희 작가는 진영 작품을, 전혜영 작가는 '관세음보살 32응신도'를, 박진아 작가는 '수월관음도'를, 오지수 작가는 '석가모니괘불도'를, 도일 스님은 '묘법연화경변상도'와 '수월관음도'를 선보인다.

박아름 기자

동국대 한문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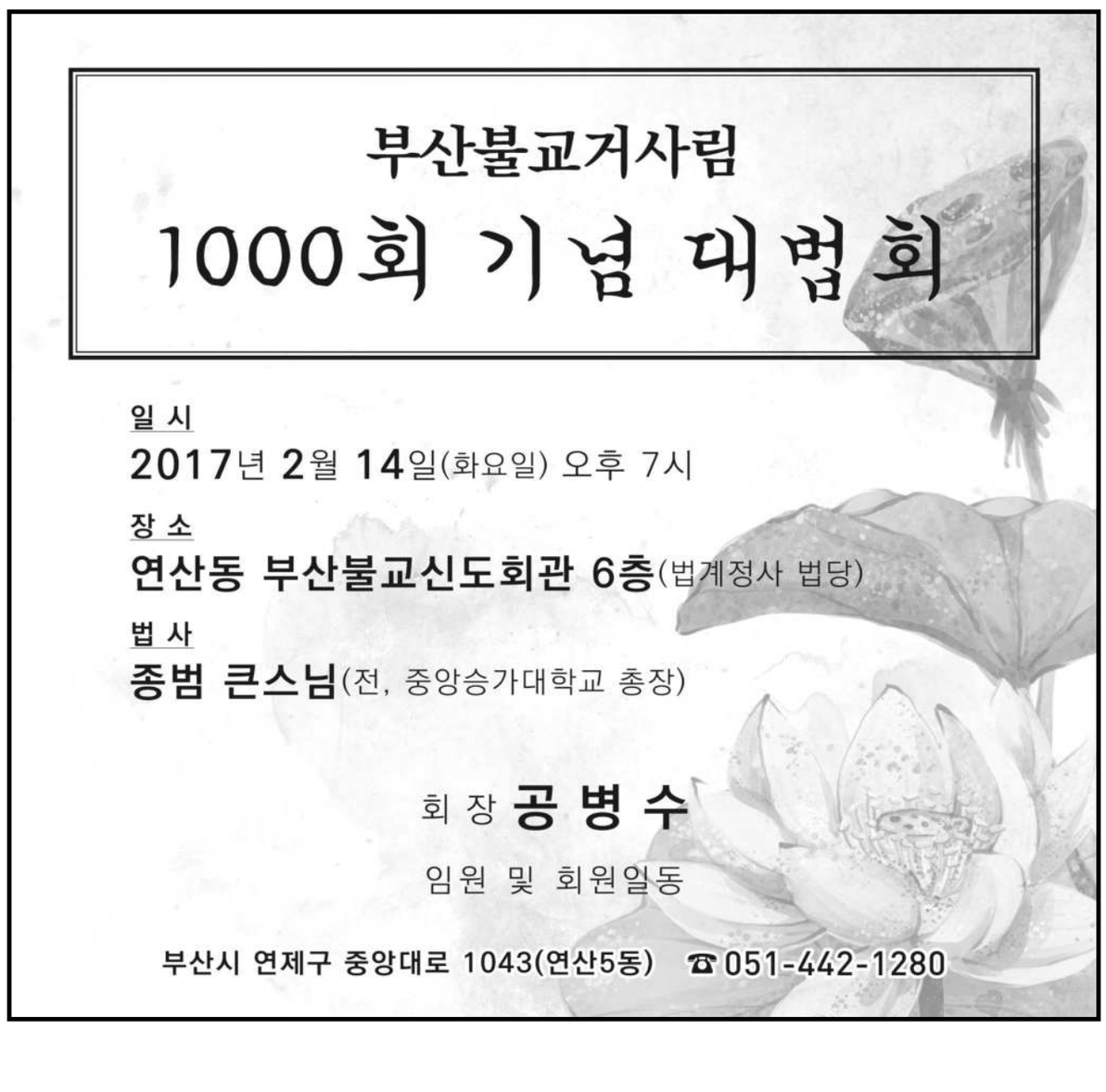
불교학술원, 오는 2월 17일까지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오는 2월 17일까지 한문아카데미의 선발 · 일반 연수생을 모집한다. 선발연수생 정원은 30명이며 불교 및 한문불전 공부에 관심 있는 4년제 대학 재학생 이상 학력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홈페이지 입학안내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자기소개서, 대학(원) 재학증명서 혹은 최종학력 증명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일반연수생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해야 한다.

선발연수생의 경우 학기당 16주(3~6월, 9~12월) 강의를 총 4학기 수강하며 30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일반연수생은 학기별로 과목당 신청 가능하다. 월요일 유식30송(묘주 스님), 화요일 유마경(정운 스님), 수요일 장자(이형성), 목요일 원전으로 본 불교교리(원과 스님), 금요일 맹자(한재훈) 강의가 실시된다. 강좌는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이다.

수업료는 선발연수생 한 학기 60만원, 일반연수생 20만원이다.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각각 42만원, 14만원이다. 조계종 추천 스님이 선발연수생 과정을 수료할 경우 승가고시서 2년 교육경력이 인정된다. (02)6713-5154 신성민 기자



법당 상황따라!

마이크 단추 한 번 누름에서 장엄하고 위엄어린 소리! 청아하고 은은한 소리! 구슬프게 젖어드는 소리가 연출되어 '재'스님들에게는 평생 밥줄 마이크!

장사 수단

각종 염불시설을 갖추고 법당에서 소리만 비교 후 쌔엥! 가버리면 아! 그 소리 듣고나서 염불이 너무 힘들어! 안되겠어! 한 번 들러요!

백팔번지 이곳은 각종 시스템을 진열하고 많은 스님들을 모십니다. 구경 한번 오시지요!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주)염불소리 ☎ 055)343-1191, 010-9471-2026

곳곳이 국보 문화재… 고대 일본을 품다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③ 호류지(法隆寺)

호류지는 일본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사찰이다. 사찰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도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 본적이 있는 절이다. 부지 면적이 187,000㎡, 국보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및 보물이 약 190건, 점수로는 2,300여 점에 달하는 규모가 엄청난 큰 사찰이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호류지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규모가 큰 것 외에 눈에 띄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중탑(五重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조 건축물인 금당(金堂) 등, 고대인이 지은 역사가 있는 이런 사찰을 찾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현대인의 행복이라고 나는 느낀다.

쇼토쿠타이시(聖德太子)의 사찰로 널리 알려진 호류지는 원래 쇼토쿠타이시 아버지 요메(用明)천왕이 자신의 병이 고쳐질 것을 기도하고 발원하여 사찰과 불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요메천왕이 세상을 떠났다. 훗날 스이코(推古) 천왕과 쇼토쿠타이시가 요메천왕의 유지를 이어받아 607년 사찰을 조영했다. 이것이 호류지 역사의 시작이다.

JR호류지 역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호류지 남대문(南大門)에 도착한다. 역에서 국도를 따라 걸을 땐 주택과 가게 그리고 많은 차량이 보이는 흔한 풍경이지만 남대문까지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고대(古代)로 타임슬립한 느낌이 든다.

현재 호류지 가람은 오중탑(五重塔), 금당(金堂)이 중심인 서원(西院)과 유메도노(夢殿)가 중심인 동원(東院)으로 나뉘어있는데, 남대문에서 들어가면 서원의 중문(中門)이 있다. 중문 자체도 아름답지만 여기서 바라보는 오중탑과 금당이 나란히 있는 위엄과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중문이 수리 중이어서 흰색 천막이 덮여 있어 이런 모습을 못 본다. 수리가 끝날 때를 기대할 뿐이다.

그럼 호류지 매력을 알기 위해 서원에 들어가자. 서원에 들어가면 오중탑, 금당이 나란히 있고 뒤에 대강당(大講堂)이 있다. 이 가람 배치는 호류지식 가람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있는 건물이 회랑(廻廊)을 포함에서 모두 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 가람 자체가 보물이다. 고풍스럽고 위엄 있는 경내의 풍경은 화려한 색깔도 아니지만 밝고 따뜻한 인상이 있다. 이는 가람을 둘러싼 회랑 창살 때문이다. 창살에서 가람 밖의 나무도 보이고 햇빛이 들어와 기분이 밝아진다. 회랑 기둥은 기둥 중간이 약간 불룩한 엔타시스 양식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탑인 오중탑은 지상에서 상륜(相輪)까지 높이 약 34m, 지붕이 위에 올라갈수록 작아지고 최상 지붕 면적이 가장 아래 있는 지붕의 4분의 1로, 안정감이 있다.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밖에서 아래층 흙으로 만들어진 소상(塑像)을 볼 수 있다.

금당은 아스카시대 건축을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이다. 균형이 잡힌 아름다운 모습은 세계 고대 건축물 중에서도 뛰어나다. 금당의 운두(雲斗)나 고란(高欄), 인(人)자형 할속(割束)이 고대 중국 건축물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숭고한 금당 내부는 쇼토쿠타이시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기도하여 제작된 금동석가삼존상(金銅釋迦三尊像)을 비롯하여 금동약사여래좌상(金銅藥師如來坐像), 금동아미타여래좌상(金銅阿彌陀如來坐像), 목조사천왕상(木造四天王像), 목조길상천입상(木造吉祥天立像), 목조비사문천입상(木造毘沙門天立像)이 안치되어 있다. 이 신성한 공간에서 훌륭한 불상을 배례하면 마음도 맑아진다.

聖德太子 사찰로 대중에 알려져
국보 보물 190건, 2300점 달해
금당·서원 등 고건축 美에 매료
구다라관음, 석가삼존상도 눈길

나는 석가삼존상을 중학생 때 알게 됐다. 역사 교과서에 호류지 석가삼존상, 구다라관음상(百濟觀音像), 다마무시노즈시(玉蟲廚子)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그냥 외운 것이었지만 호류지 보물에 대해 왜 중학생 때 배울 필요가 있는지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불상을 둘러싸고 있는 벽화는 1949년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 복원한 것이지만 정말 아름답고 중국 석굴 안에 있는 느낌이 든다. 다행히 비천도(飛天圖)는 화재 때 다른 곳에 있어 지금 대보장원(大寶藏院)에서 실견할 수 있다.



호류지 금당의 석가삼존불상. 신성한 공간에서 훌륭한 불상을 예경하면 마음도 맑아진다.



호류지 금당 북쪽에서 보는 금당과 오중탑. 회랑을 포함해서 모두 국보로 지정됐다.

금당을 나가 대강당에 가면 헤이안(平安)시대에 제작된 목조약사삼존상(木造來師三尊像), 목조사천왕상(木造四天王像)이 안치되어 있다. 여기는 불교의 한 문 연구, 법회가 거행되는 곳이다.

그럼 일단 서원(西院)을 둘러본 다음은 동쪽에 있는 대보장원으로 간다. 대보장원에 들어가면 호류지 보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뛰어난지 알게 되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 호류지 입장료는 1500엔으로 일반 사찰보다 훨씬 비싸지만 대보장원에 오면 납득이 간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만나는 불상이 유명한 국보 유메치가이(夢違)관음이다. 악몽(惡夢)을 길몽(吉夢)으로 바꾸는 효험이 있다고 전하는 이 관음보살상의 모습이 따뜻하고 자애심(慈愛心)이 가득하여 잠시 머물고 싶다고 느낀다.

스이코(推古)천왕 소유의 불전이라고 전하는 다마무시노즈시(玉蟲廚子)는 아스카시대 건축·공예·회화·조각 등 여러 기술을 구사한 종합 예술품이다. 나는 어렸을 때 다마무시노즈시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었다. 최근에 내가 대보장원에서 검은색이 된 다마무시노즈시를 보면서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혼자 웃었더니 자원봉사 해설원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가와서 지금도 빛나는 부분이 있다며 작은 라이트를 사용하여 나에게 보여주었다. 정말 빛나고 있어 놀랐다.

대보장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보장원 중심인 1998년 낙성한 구다라(百濟)관음당이고 여기에 안치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보 구다라관음상이다. 높이 2미터 이상, 팔등신의 날씬한 몸매인 구다라관음상은 정말 우아하고 신비롭다.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작은 얼굴과 팔등신 스타일인 불상은 일본 불상 중에서도 드물다. 천이 얇게 조각되어 있어 천의 자락이 불상의 인상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불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다. 구다라관음상이라는 명칭은 메이지(明治)시대 이후의 명칭이며 그 때까지는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로 여겨졌다. 그러나 보관(寶冠)이 발견되어 화불(化佛)이 있어 관음임을 알게 되었다. 아스카시대 불상인 구다라관음상은 누가 제작했는지 원래 어디에 안치되어 있었는지 등 조성 시의 문헌기록이 없다.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것이 에도(江戶)시대부터이다. 백제에서 전래한 불상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일본산 녹나무를 사용하고 있어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관음상 앞에서 세계 평화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과 마음이 관음상처럼 되는 것을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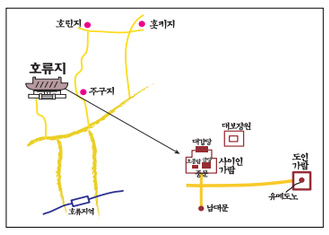
대보장원에서 귀중한 보물을 만끽한 다음에는 동원(東院)에 간다. 동원은 739년에 쇼토쿠타이시를 추모해 교신(行信)스님이 건립한 곳이다. 동원의 핵심이 팔각형 건물인 국보 유메도노(夢殿)이며 여기에 비불(秘佛) 국보 구세관음상(救世觀音像)이 안치되어 있다.

쇼토쿠타이시 등신대 크기로 만들었다는 이 관음상은 오랫동안 비불이었는데 1884년에 문화재를 조사했던 미국인 학자 페놀로사와 일본 사상가이면서 미술사가인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에 의하여 감실이 열리고 관음상을 덮고 있었던 흰색 천이 풀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양손으로 보주(寶珠)를 들고 있는 모습이 관음의 자비를 상징하고 있다. 이 보살상은 한반도 삼국시대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비불이어서 평소에는 볼 수 없지만 매년 4월 11일에서 5월 18일까지, 10월 22일에서 11월 22일까지 배례(拜禮)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이 기간에 시간을 맞춰서 가보기를 권한다.

글·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부장

호류지 주변 볼거리



호류지 답사는 일반 사찰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적어도 1시간 30분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낫다. 이카루가(斑鳩)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서 걸으면서 주변 사찰도 답사하려면 한나절로는 부족하고, 하루 종일 여기서 지내는 게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다.

식당은 호류지 남대문 앞에 몇 곳이 모여 있다. 나는 나라 명물인 차로 쑨 죽을 먹었는데 꽤 괜찮다.

호류지 동원에서 밖에 나가면 바로 비구니 사찰 주구지(中宮寺)다. 주구지에서 국보 보살반가사유상(菩薩半跏思惟像)이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방문객을 맞아준다.



호류지 주변에 홋키지에 있는 삼층탑.

주구지를 나와 12분 정도 북쪽에 걸어가면 호린지(法輪寺)에 도착한다. 작은 사찰이지만 아스카시대, 헤이안시대 불상을 중심으로 여러 시기의 아름다운 불상을 볼 수 있다.

호린지에서 10분 정도 동쪽에 가면 국보 삼중탑으로 유명한 홋키지(法起寺)가 나온다.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시골 풍경이다. 홋키지에서 호류지역까지는 걸어서 40분 정도 걸린다.

마지막으로 답사하기에 좋은 계절에 대한 정보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봄, 가을에 답사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호류지는 수학여행을 비롯하여 단체관광객이 굉장히 많아 고즈넉한 공간에서 답사를 만끽하고 싶다면 단체관람인원이 많지 않은 겨울이 최고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행운의 벽조목
인공이 아닌 천재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



완전 수제품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가장 신비한 나무'라며 그 신비함이 전해 내려 오고 있습니다.

진품 벽조목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천하의 행운을 주는 보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진품 벽조목은 수백년 묵은 대목으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년 7월 하순경 벼락 맞은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벽조목입니다. 이 진품벽조목으로 평생 갖는 목걸이, 열쇠고리, 도장, 단주, 염주 등을 수제작하여 각종 질병, 사업, 경제난, 입시, 승진, 가정화합, 자녀갈등, 호신부, 패물, 부적, 재앙, 액운, 성불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에게 잡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어사전,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합니다.

오직 진품만이 인생을 바꾸는 그 효능을 발휘하는 행운의 벽조목은 항상 생산되는 것이 아닌 유일한 것이므로 인연 따라 주어집니다.

※ 구입하신 분은 점안을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홍련암 聖眞 010-9964-2550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한 생각 접고 보면

〈장자(莊子)〉의 달생편에 나오는 싸움 닭(木鷄)에 대한 이야기이다. 닭 싸움을 즐겨보는 왕이 투계 조련사로 유명한 기성자라는 사람에게 천하제일의 싸움 닭 조련을 부탁한다. 열흘 간격으로 기성자가 왕에게 싸움닭의 조련 상태를 보고한다.

1. 허세를 부리며 깃털을 세워 상대를 얕잡아 기운을 뽐내려 한다.
2. 닭의 울음소리와 모습을 보면 덤벼들 기세로 힘을 과시 한다.
3. 상대 닭의 허점을 노리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공격하려 한다.
4. 상대 닭을 만나도 나무로 만든 닭과 같아 평정심의 덕(德)과 용(勇)을 갖추어 어느 싸움닭도 그 모습만 봐도 공격할 틈새가 없어 겁에 질려 도망 가려한다.

투계 조련사인 기성자의 설명을 듣고 왕은 목계(木鷄)에 매우 만족해 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의 전설적인 무사(武士) 미야모토 무사시와 사사키 고지로의 대결이 담긴 책이 〈궁본무장(宮本武藏)〉이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평민 출신이다. 스승 없이 자연의 섭리를 스승삼아 무술의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는 진검이 아닌 목검으로 천하제일의 칼잡이가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사사키 고지로는 무예 명문가계로 이어지는 무림(武林)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상의 칼잡이 기술을 연마해 검술의 으뜸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들 두 사람은 〈궁본무장〉 소설의 끝부분에서 대결하게 된다. 사사키 고지로는 천하의 명검을 들고도 목검의 미야모토 무사시 일격에 그야말로 묵사발이 된다.

자, 우리네 삶의 현장은 팍팍하고 고단하다. 살벌하고 힘에 겹다. 배고프고 목마르다. 흔들리고 헐떡인다. 불만과 권태는 나이테처럼 그 둘레를 넓혀가고 어둠의 그림자는 우울증처럼 몰려온다. 삶의 무게가 세월의 무게로 가슴을 짓누르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겹쳐 얽히고설킨 실타래 같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지 오래고, 대화의 상대자마저 이해의 결핍으로 멀어진지 오래이다. 터널에 갇힌 삶이 호롱불빛이라도 찾아 헤매나 둘레는 적막강산으로 절대고독만을 몰고 온다. 쓸 곳은 많으나 주머니는 비어있고 그리운 얼굴은 많으나 먼 거리에서 등 돌린 지 오래이다.

가난에서는 언제나 신기하게도 소리가 나는 법이다. 마음속에 구멍이 송송 뚫린듯한 공허함과 쓸쓸함에서는 소리 대신 죽음의 냄새가 풍겨온다.

있을 때는 몰려오고 없을 때는 사라지는 세상만사의 오고감이 허무의 그림자로 삭신 깊이 길게 누워 몸과 마음이 저리고 아프다. 종교의 신앙 쪽에서도 돈타령이고 남녀 교제에서도 돈의 위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살고 싶으나 살 기력이 없고 죽고 싶으나 죽을 용기가 없어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어둠에 갇혀 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장자(莊子)〉의 달생편에 나오는 싸움닭 목계(木鷄)로 되돌아가보자. 흔히들 목계에 이르러야 싸움닭이 완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목계(木鷄)에 이르는 과정이 더욱 아름답고 살맛나는 풍경이다. 토라지고 뽐내고 티내며 으스대는 것이 졸부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완벽보다는 사람 냄새가나서 좋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성공의 성취욕도 중요하지만 실패의 쓰린 다짐이 사람을 철들게 하고 사람답게 키우는 법이다.

청춘만 아픈 게 아니다. 인생살이는 아파야 살 맛 나는 것이다. 흔들리고 더러는 헐떡이며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삶이 소중하고 값지며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목계는 완벽해 닭답지 않다. 사람도 완벽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다. 부정적인 착각을 긍정적인 착각으로 되돌리며 빛과 어둠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명심할 일이다.

종교와 성직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그대로 복지국가요, 살기 좋은 세상이다. 〈궁본무장〉의 교훈처럼 최고의 스승은 높은 곳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이웃, 자연 그대로가 최상의 스승이자 교과서이며 삶의 길잡이인 것이다. 누구나 홍길동이 될 수 있듯 나무칼(木劍)로 진검(眞劍)을 이긴 미야모토 무사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생각만 접고 보면 어둠이 빛이 된다. 절망이 희망이 된다. 슬픔이 기쁨이 된다. 극락세계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것이다. 내숭 뚝! 체면치레 뚝!

최고의 스승은 내 주위에 있다
내 이웃과 자연이 삶의 길잡이

마음법 전하니, 선종이 우뚝서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 선종의 육조 혜능(慧能:638~713) 대사는 매우 드라마틱한 생애를 산 인물이었다. 한 인물의 생애가 전설로 엮어지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불교적 입장에서 볼 때 숙생의 선근인연이 성숙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살던 가난한 나무꾼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읽고 쓰지도 못했다는 그가 저자거리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금강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발심출가 하여 오조 홍인 회상을 찾아갔다는 것과 8개월 허리에 돌을 달고 방아를 찧다 신수 대사의 게송을 능가하는 게송을 지어 야밤에 오조로부터 몰래 조사위(祖師位)를 전해 받았다는 일화는 상식을 뛰어 넘는 이야기다.

대유령에서 의발을 빼앗으러 뒤쫓아 왔던 몽산 스님을 깨우쳐 준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 16년 동안 사냥꾼 무리에 섞여 은둔생활을 하게 된다.

그가 은둔생활을 끝내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은 광주 법성사에서 인종(印宗) 화상을 만나면서부터다.

인종 화상이 〈열반경〉 강설법회를 열고 있던 어느 날 초라한 차림의 객이 법성사에 나타났다. 법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 젊은 스님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논쟁을 하고 있었다.

마당가에 기(旗)를 거는 게양대에 바람이 불어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이를 보고 두 스님이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하면서 언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깃발은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움직이는 것은 결국 바람이라고 한 사람은 주장하고, 또 한 사람은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깃발이 펄럭이므로 움직이는 것은 깃발이라는 것이었다. 한쪽에서 이 말을 들고 있던 당시의 노행자(육조 혜능 대사)는 언쟁을 만류하려는 듯이 한 마디 덧붙였다.

"스님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입니다."

의외의 말에 두 스님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곧장 인종 스님에게 뛰어가 노행자의 말참견한 말을 전했다. 인종 스님은 노행자를 모셔오게 한다. 인종이 물었다.

"조사의 법을 전해 받은 이가 남쪽으로 가셨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 조사위를 전해 받고 내려온 분이 아니십니까?"

때가 온 줄을 안 노행자는 사실대로 말하고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인종 스님에게 밝혔던 것이다.

이리하여 비로소 노행자가 인종 스님에 의해 득도되어져 스님이 되었다. 조사위를 전해 받은 사람이 스님이 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러나 법맥 계승을 두고 보면 인종 스님이 노행자 혜능 대사의 법을 전해 받은 제자 위치에 서게 되고 동시에 노행자를 득도시킨 은사가 된 것이다.

육조 혜능 대사는 중국 선종의 기반을 닦아 꽃을 피우게 한 장본인이다. 일화오엽(一花五葉)이라는 말이 생긴 것처럼 선종의 다섯 종파가 육조 혜능 대사를 기점으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게 되었다. 육조 대사는 쌍봉산 조계(曺溪)에 보림사(寶林寺)를 개설하여 선법을 펴기 시작한다. 그 후 대범사에 머물면서 승속을 교화하면서 법문을 설한 것이 〈육조단경〉이다. 제자 법해 스님에 의해 집록된 이 책은 선종사에서 불멸의 위치를 차지하는 선서(禪書)로 5가 7종의 법이 모두 이 단경으로부터 나왔음은 물론 후대의 선불교를 지배하는 이념적 근원이 되었다. 선종 초조가 달마 대사이긴 하나 실제적인 선의 정착은 육조 혜능 대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쓰면 바로 부처가 되느니라."(菩提自性 本來淸淨 但用此心 直了成佛)

〈육조단경〉 4구계라고 할 수 있는 말이며 돈오의 종지를 드러낸 말이다. 근세의 중국 정치가 모택동이 〈육조단경〉을 매우 좋아하고 애독했다고 한다. 1989년에 발간된 '중국을 움직인 30권의 책' (원명 〈影響中國歷史的三十本書〉)에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명저 30권(실제33권)을 뽑아 내용을 요약, 수록하였는데 불교 서적은 오직 〈육조단경〉만 들어가 있다.

"보이는 일체는 대상에 의해 존재"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⑥ 존재와 마음

지금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반재해와 자연재해는, 우리들의 물질만능의 탐심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진 자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진 자를 부러워하여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는 상대적 빈곤인 물질 만능의 탐욕이, 물질을 남용하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여 크고 작은 무수한 재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남용되지 않고 자연은 훼손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병이 걸린 사람이 허공에 핀 허공 꽃을 보는 것과 같이, 구하고 얻으려는 우리들 욕망의 분별망념이 남용되고 파괴되는 것을, 마치 물질이 남용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것으로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해와 그에 따른 모든 고통은 오직 우리들 분별망념의 업보(業報)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서산 대사는 승병을 이끌고 재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진묵 선사는, "그는 참된 승이 아니고 명리승(名利僧)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서산 대사는 4지 보살이고 진묵 선사는 8지 보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4지 보살은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에 해당하고 8지 보살은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에 해당합니다. 식무변처정은 아직도 생각이 남아 있는 경계이고, 비상비비상처정은 '생각이 아니다.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의 경계로서, 성인(聖人)의 경지에서도 4지 보살과 8지 보살은 이렇듯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네가 혹시 마음을 알고 싶다고 말한다면, 지금 바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자네의 마음이다."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이다' 라고 하고,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이다 하며, 지금 허리 관절이 아플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왜냐 하면, 스마트폰은 나는 스마트폰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부처님은 나는 부처라고 하지 못하며, 허리는 스스로 아프다고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과 부처님과 아픈 허리는 무엇인가? 지금 스마트폰과 부처님, 아픈 허리가 없으면 마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부처님, 아픈 허리가 마음이고, 마음이 스마트폰, 부처님, 아픈 허리로서 일체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스마트폰이라고 말한다면, 말하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이 말하는 것이며, 스마트폰을 말하는 것이므로 스마트폰과 마음은 둘이 아닌 한 마음인 것입니다.

보는 눈과 스마트폰, 부처와 중생, 아픈 허리와 아픈 느낌,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 티끌 같은 일체의 상대법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원융하게 융통 자재하는 것이 진공(眞空)이고 융통하는 진공이 되면, 티끌 같은 일체의 상대법이 그대로 묘한 작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삼아승지겁의 백천이나 되는 명호가 있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이름을 세우기 때문이다. 대상에 따라 색이 변하는 마니주(摩尼珠)와 같이 각기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의 끝 부분에서, 항상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하십니다.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티끌이 티끌이 아니다. 이름이 티끌이다' '이름이 부처이고 이름이 여래이다' 라고 하셨으며, 또한 〈능가경〉에서는 삼아승지겁의 백천이나 되는 명호는 이 모두 여래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칼은 스스로 자신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잘리는 대상이 없다면, 칼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부처님, 아픈 허리 등 일체는 대상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삼아승지겁의 백천의 티끌 수와 같은 일체의 명호는 모두 마음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현문 현각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현인 보원 교무부장 자암 정오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관산 지륜 비구니부장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3월 9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1만배 정진에 변화하는 사회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③ 108배가 살린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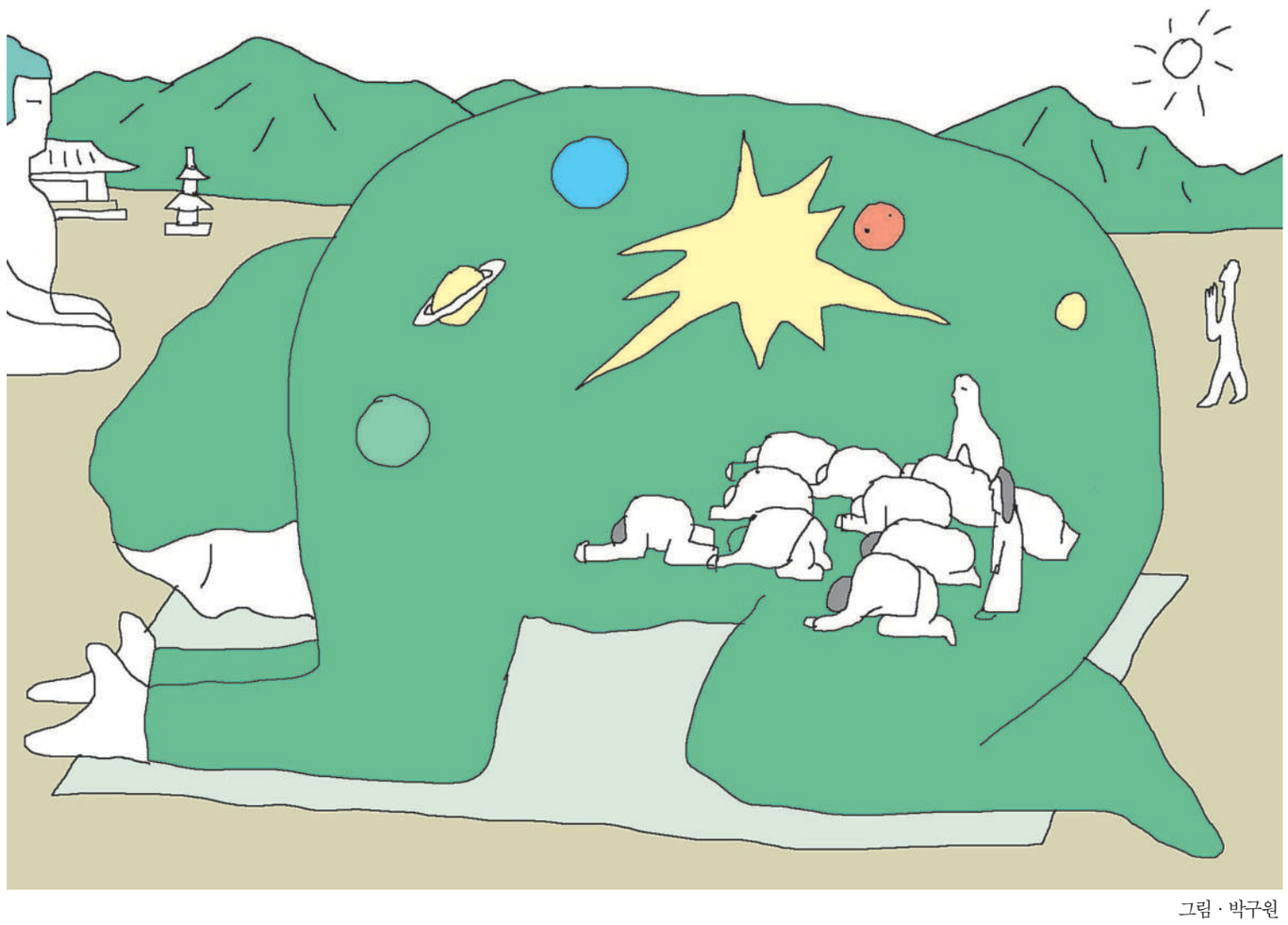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세밑에 멀리 산청 지리산 자락에 있는 선림사에 다녀왔다. 친구가 1080배 백일기도 회향을 그곳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축하 차 함께 간 것이다. 저녁예불 뒤 친구의 마지막 기도에 동참해서 오랜만에 1080배를 했다. 300배를 하고 10분씩 쉬며 세 시간 정도 절을 하고 나니 가슴속 저 밑에서부터 잔잔한 기쁨이 올라왔다. 오랜 인연의 초등학교 동창과 절을 하게 된 것도 즐거웠지만, 처음 백일기도를 시도한 친구가 큰 장애 없이 끝까지 완주해주어서 정말 기뻤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좋은 방향으로 길을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하고 큰 힘이 생겼다는 친구의 고백은 108배를 처음 권유한 나로서는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다.

다음 날, 바람이 세차고 눈발까지 휘날렸지만 추운 새벽 예불과 함께 하는 108배는 집에서 하는 절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상큼하고 생기 있게 느껴졌다. 나처럼 새벽예불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에겐 절에서 그것도 새벽에 하는 108배는 언제나 감동이다. 새벽예불을 하기 위해 세 시에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법당으로 가는 길에 바라본 별빛, 코끝으로 쏴 하고 파고드는 차가운 기운, 어둠 속 나무들이 뿜어내는 아름다움은 새벽예불에서 얻는 고마운 보너스다. 법당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광활한 우주에 나 홀로 있는 듯 한 그 적막감은 언제나 나를 벅차게 한다.

법당과 요사채 하나가 전부인 선림사엔 절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 스무 명 이상 있다. 오늘은 그분들과 함께 정진하는 도우 법사를 소개하려고 한다. 지금 오십 대 중반인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10여 년 전 쯤 해인사 방장이셨던 법전 스님의 일대기를 쓰기 위해 김천 수도암에 가 있을 때였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에 법당에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이십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절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다들 절도있게 절을 잘하는지 교육을 잘 받은 신행단체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가운데 조용히 앞줄에 서서 절을 하는 여성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몸을 움직이며 절을 하는데도 온 몸이 침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단정한 얼굴과 조용한 몸가짐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짧은 시간 동안 느낀 그녀의 압도적인 아우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변함 없다.

그녀가 한 신행단체를 이끄는 법사이며, 수도암에 정진하러 왔다가 법전 스님을 만나 뵙고 화두를 받아 정진, 300일 동안 하루에 만배씩 정진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30대 초반에 그녀가 108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처님 전에 이렇게 서원했다고 한다.

"부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매일 1080배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다할 때까지 매일 108배를 열 번하겠다는 다짐이었던 것이다. 대학에 다니던 중 출가를 결심하고 절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속세로 다시 내려온 뒤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살던 즈음이었다.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그 많은 공양 중에 왜 1080배로 공양을 올리려했는지 물은 적은 없지만, 내 경험으로 미루어 참회의 공양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참회는 모든 기도의 시작이니까.

그녀가 하루에 1080배를 하다가 만 배 기도를 시작한 것은 사십대 중반쯤이다. 하루 만배의 정진은 이미 사람의 힘을 넘어선 경지다. 적어도 3천배를 한번 쯤 해본 사람은 24시간 안에 만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일인지 안다. 오래 전 나도 도반들과 함께 하루 만배에 도전한 적이 있다. 성도절 전날이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 힘든 고행 끝에 도를 이루신 날을 기념하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보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10여 명쯤 되는 도반들이 절을 시작했는데, 5천배에 이르자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7천배쯤에 이르러 '어머, 이러다 죽겠네!' 하고 손을 들고 말았다. 쉬는 방에 들어와 쓰러질듯이 누워버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하루도 아니고 300일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1만배를 했다는 말인가.

하루에 만 배를 하려면 하루 세끼 밥 먹는 시간과 세수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 그리고 두어 시간 쉬는 것 이외엔 절만 해야 한다. 글쎄, 그런 상황을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 히말라야의 고봉을 오르는데 하루 두어 시간 쉬고 걷기만 하는 것과 같을까?

참회의 공양으로 108배 서원
300일간 1만배 정진 진행
청소년 상담 · 포교에도 앞장

처음 100일 동안은 집에서 절을 했는데,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초죽음이 된 엄마를 보고는 '부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며 절하는 엄마 곁에서 울며 300배씩을 했다고 한다. 절을 시작한지 100일 뒤 짐을 싸서 수도암으로 올라갔다. 절에서 해주는 밥을 먹고 절을 하니까 훨씬 수월했다. 나머지 200일 동안 무사히 절을 마치고 회향했는데, 당시 수도암에서 그녀가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그녀가 절을 하던 당시 수도암 주지 소임을 보며 그녀를 외호해주신 원만 스님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하루에 그 많은 절을 하려면 남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다가와 절을 하는 방법을 묻거나 하면 하던 절을 멈추고 친절히 가르쳐주는 걸 보고 놀랐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독하게 만배를 하더군요. 보통 분이 아니라고 느꼈죠. 먹는 것부터 기도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저도 힘껏 외호해드렸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300일 정진을 하고 난 다음 그녀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오늘날 그녀의 곁에서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진하고 있고, 그동안 그녀의 지도를 받아 108배, 3천배를 하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보며 미루어 짐작해볼 뿐이다.

한번은 그녀가 이끄는 법회에 우연히 참석한 적이 있다. 한 3~400명은 족히 모였을 것이다. 대구에 새로 지은 어느 절 법당을 빌려 한 달에 한번 열리는 법회를 하는데, 100여 평 정도 되는 법당 공간이 모자라 복도 밖까지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찬 것을 보았다. 어느 법회처럼 스님이 나오셔서 법문을 하거나 법사인 그녀가 대신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하는 시간도 없었다. 삼귀의례를 하고 금강경을 읽는 것이 전부였다. 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날 저녁에 들어와 밤새도록 3천배를 하고 조용히 법회에 참석하는 게 전부인데도 어느 야단법석에서보다 더 큰 힘이 느껴졌다. 그 차분하고 격이 있었던 분위기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지금 선림사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며칠에서 몇 달씩 머물며 기도를 하다 간다. 방학이면 초등학교 학생부터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청년, 어른 할 것 없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오거나 홀로 왔다가 절을 하고 간다. 올 겨울 방학에는 마산에 사는 중학생 다섯 명이 한 조를 이루어 아침저녁으로 108배를 하고는, 남은 시간엔 절 앞마당에서 공을 차며 놀다 갔다. 초등학교 때부터 108배를 해오던 아이들이라고 한다.

"굳은 표정을 하고 온 아이들도 며칠 절에 머물며 절을 하고 나면 잡초가 말끔히 사라진 밭고랑처럼 얼굴이 훤해지고 푸른 하늘로 튀어 오르는 축구공처럼 가볍고 명랑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그녀는 일정하게 짜인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는다. 각자 환경과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기를 보아가며 108배, 1080배, 3000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나머지 시간은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보내도록 한다. 아름답게 변해가는 지리산의 사계절 풍광을 만끽하며 자유롭게 지내다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늘 그들에게 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절을 하고 간 아이들과 청년들은 크고 작은 일들을 의논하고 싶을 때면 큰어머니와 같은 그녀에게 수시로 문자를 보낸다. 하루에도 수십 통이 넘는 문자를 받는 그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따뜻한 답장을 보낸다.

그녀의 가장 큰 관심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 대한 포교다. 맑은 영혼으로 있을 때 108배를 하는 것이 좋은 인성이 형성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고민을 털어놓고, 108배를 하고 난 다음 자신감을 얻고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녀는 모든 아이들이 밤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영혼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들의 일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아무 걱정 마세요. 그 아이들은 이미 완전한 부처인 걸요'라고 말해준다. 그 말이 얼마나 진실하게 느껴지는지, 걱정이 태산 같던 부모들의 딱딱한 마음이 봄눈 녹듯 한다고 한다.

한번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처녀를 부모가 데리고 왔다. 절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에게 맡기고 갔다고 한다. 그녀는 내 자식처럼 곁에 데리고 있으면서 절을 시켰다. 밥을 먹다가 먹은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은 다반사고 주위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절을 하러 온 젊은 사람들에게 보살펴주도록 부탁도 하고, 꾸준히 절을 시킨 지 몇 년, 지금은 어머니가 경영하는 약국에서 일을 도와줄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취직을 앞둔 청년들이 절을 하고 난 다음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려 시험을 치른 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평범한 일에 속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108배를 함께 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모습도 선림사에선 자주 볼 수 있다.

일 년에 몇 차례 선림사에 가서 나는 그녀를 만난다. 새로운 일을 앞두고 힘을 얻고 싶을 때나 지리산의 밝은 햇살이 그리울 때 그곳을 찾는다. 저녁 예불을 하고 한가한 시간에 그녀와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내가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나를 구속하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다가도 그녀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내가 다른 모양의 틀에 갇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이에 있지 않을까 싶다.

그녀를 보면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108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켰는지 느끼곤 한다. 청정한 한 마음이 한 국토를 변화시킨다는 열반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연등전문기업 대광불교

지혜의 등 · 자비의 등
연등을 밝히세요!!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6-7270 | 031)766-7271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2.1~2017.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짧지만큰가르침(성철스님의)	원택엮음	장경각
2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선재스님의삶에서배우는사철음식이야기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3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4	알기쉬운쑥쑥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5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주)조계종출판사
6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7	능엄경 대의풀이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8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9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10	혜민스님의따뜻한응원(365일마음달력)	혜민	수오서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禪密, 선을 척추 삼아 살을 입힌 것



선밀, 선을 두루 살피다

소계 전산 지음
운주사 펴냄
2만원

불립문자, 언어도단이 '선'의 경지일진대, 선을 문자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이 필요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현〉과 〈선밀〉, 이 두 책은 상호보완하면서 '달'의 진체를 보여주고, 달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기도 할 것이다.

'선'은 오랫동안 동아시아 정신문명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특히나 현대 사회에 그 가치가 더욱 유효하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서 도전에 직면했다. 명료하게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언어문자로써 선을 그려내는 순간 본질과 천리만리 어긋난다고 말한다. 이렇게 선은 하나의 사상체계이지만, 본질적으로 종교적 수행체계이기 때문에 일반 철학 등과 같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대인의 특성상,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선을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대인의 언어, 현대인의 사고방식, 현대인의 지식으로 접근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은 해방이요 해탈이다. 무엇의 해방이요 해탈인가? 몸과 현상과 현실과 조건에 묶인 마음의 해방이요 해탈이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문제 삼는다. 마음은 자기에게 묶이고 집단에

"禪은 육신의 해방과 해탈이요
마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
결국 禪은 생각 의식에 대한 탐구"

묶인다. 따라서 자기로부터의 해탈, 집단으로부터의 해방이 요점이다. 선의 지난한 역사는 이러함의 끝없는 과정이다.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결국 생각, 의식에 대한 탐구인 셈이다."

〈선현〉과 〈선밀〉은 이렇게 선에 대한 저자의 천착이자 탐구 여정의 기록이다. 〈선현(禪現)〉은 선의 요지만을 군더더기 없이 일관되게 드러내어 밝힌 것이고, 〈선밀(禪密)〉은 선을 척추로 삼아 살을 입힌 것이다. 즉 〈선현〉은 본지풍광의 자리를 간결히 설명한 반면, 〈선밀〉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즉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과학 등의 지식을 동원해 설명한다. 따라서 〈선밀〉에는 선의 골수가 육체 속의 척추같이 들어있어 많이 숨겨지고 가려졌다. 그러나 〈선밀〉을 정독하면 선의 골수를 더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사실 〈선현〉의 내용은 대부분 〈선밀〉서 다시 언급된다. 이 두 책이 뼈와 살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현〉을 통해 선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으면 굳이 〈선밀〉을 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뼈대와 살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육체를 이룰 수 있듯이, 〈선밀〉을 통해 〈선현〉을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하고, 〈선현〉을 통해 〈선밀〉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저자의 말처럼 "두 책은 비록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읽어가다 보면 쇠가 불과 물에서 연단되듯이 자신의 정신이 연단됨을 느낄 수 있고, 마침내는 지혜의 명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좌선의 고요 속에서 자신의 내면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한다. 감각의 고도화와 마음의 집중을 통해 그동안의 잘못된 견해를 뒤집고 획기적인 인식에 도달해서 존재의 진실상을 바라보라고 한다. 이렇게 수행을 통해 실제롭게 정신을 다스리는 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요 대진화이며 비의(秘意)중의 비의라고 한다. 이처럼 수행은 정신과 육체에 대한 탐구이며 몸과 마음에 대한 실천적 궁구이다. 어리석은 자는 세계를 바꾸려고 하고,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바꾸고자 한다.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이 수행이며, 거두절미하고 본질로 직진하는 것이 직지(直指)다. 그리고 그 궁극에는 깨달음이 있다. 전도몽상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본질을 깨달을 때, 의식은 비로소 대자유와 지고한 행복에 도달하게 됨을 밝힌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임제록, 무의진인 되는 지름길

무의도인으로 살게 하는 임제록

양지 역주 | 임성순 서화
맑은소리맑은나라 펴냄 | 2만원



〈임제록〉의 원제는 〈진주임제혜조선사어록(鎭州臨濟慧照禪師語錄)〉이다. 당나라의 선승인임제의현(臨濟義玄: ?~867)의 가르침을 그가 죽은 후 제자인 삼성혜연이 편집한 것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의현이 죽은 후 254년이 지난 1120년(북송의 선화 2년)에 원각종연이 중각(重刻), 인본(印本)한 것이다. 내용은 상당·시중·감변·행록·탑기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감변과 행록에는 당시 선가들의 사상적 교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많다.

마조·백장·황벽의 어록과 나란히 4가 어록의 하나이며 대표적인 선종어록으로서, 〈임제록〉을 선어록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남방불교에서 북방불교로 전환되어 대승불교가 된 이후 선불교를 완벽히 대중화해 모든 사람들이 부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임제선사는 승속을 아우르는 모든 이들이 부처나 조사라는 언어문자나 개념에 속박되지 말고 자신 스스로 진정견해를 체득해 무의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기원하고 있다.

임제혜조선사어록을 해설하며 이 책은 이제까지 많은 선지식들이 번역과 해설을 했으며 현재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이 책을 다시 번역하고

조사로 살아가는 법 설명
선가들의 사상적 교류도

해설한 것은 신앙과 종교를 구분하여 확실하게 알리기 위함이고, 한 사람이라도 견실히 수행해 부처나, 조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자 함이며, 부처나 조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출현해 불법을 계승하길 서원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밝힌다.

임제조사는 사람이 부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무의도인, 무위진인이라고 표현하며 실제로 부처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강조한다.

〈임제록〉은 상당, 시중, 감변, 행록으로 구분 편집됐는데 감변과 행록은 임제스님이 제도(濟度)하는 것과 서로의 안목을 점검하고 확신케 해 불퇴전의 무의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비심을 실천한다.

혜능을 조사로 만든 것이 〈육조단경〉이라면 〈임제록〉은 사람들이 조사로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설해 실천케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이 책의 내용을 반복해 논문이나 해설서를 만들어 설명을 더 하여도 구경에는 읽는 이들이 실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사족(蛇足)만 더하게 될 것이 우려돼 간략히 정리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양지 스님은?

1992년 해인사 길상암 명진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김해 신흥사 주지로 있다.

▲선서화가 남청 임성순은?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석사를 거쳐 불교대학원 선문화전공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전 국회의원상, 전국관설당 서예협회 초대작가 현재는 남청서예원 원장으로 있다.

예술 작품 통해 본 옛 사람들의 성정

테마로 읽는 우리 미술

신대현 지음 | 혜안 펴냄 | 1만 8천원



이 책은 우리의 대표적 전통미술 작품들을 석불·석탑·금속공예·불화·목조·건축 및 문화유적 등 여섯 가지 테마로 분류하고 그 중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성정(性情)이 잘 담겨있는 47편의 작품 및 유적을 뽑아 그들의 특징과 거기에 깃든 예술적 가치를 해설한 것이다. 30년 간 한국미술사를 연구한 저자 신대현은 이러한 고정관념서 벗어나 국보와 보물 등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재들을 소개했다. 먼저 작품이 탄생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작품의 가치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옛이야기를 듣는 듯 쉽고 인상적 해설로 전달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소개한 불교문화재들은 곧 우리나라 미술의 커다란 축이었다는 점에서 비단 불교미술의 영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미술의 기본 감수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말한다.

문화재란 역사가 빚어낸 민족의 작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니는 미의식과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고, 여기에 오랜 역사가 더해져 지금 우리에게 전해온 것이 문화재다. 그러므로 작품의 평가기준을 어느 한 시대의 미술에

저자, 30년간 대표 문화재 소개
47편 문화유적 뽑아 자세히 해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좀 더 통시대적이고 종합적으로 놓고 보아야 한다고 이 책서 저자는 이야기한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평가 역시 서로 간의 우열을 따지는 방식에서 한 발 비켜서야 한다. 미술 감상이 콘테스트에 나온 작품들에게 점수 주고 등수 매기는 작업이 아닌 바에야, 역사의 산물인 문화재에 대해서 서로 어느 부분이 잘되고 못되었음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옛사람들과 동감하려는 생각이 더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이 책의 첫 장은 시작된다.

책에 소개된 작품 중 몇 가지를 들면, 화엄사 효대의 사사자 삼층석탑에 깃든 연기조사와 그 어머니의 사연이 들려주는 애틋한 효심의 이미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천신만고 끝에 현해탄을 다시 건너왔지만, 한국전쟁 참화로 상처투성이가 된 채 외로이 경복궁 경내에 남아있는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한국 최고의 근사한 남자'로 유명 브랜드 슈트에 못지않은 세련된 디자인 갑옷을 입은 경주 감은사지 동탑 사리함의 사천왕상, 한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땔감 잿더미로 화할 뻔했다가, 당시 청년장교인 고(故) 리영희 교수의 노력으로 살아남은 속초 신흥사 경판들, 잡작스럽게 다가온 죽음마저 지극한 애정으로 극복한 조선시대 부인의 사부곡(思婦曲) 전설이 깃든 울진 불영사 환생전기 현판, 사람들의 심성 깊이 자리한 '정토세계'를 향한 아름다운 상상을 조그마한 건축세계로 표현한 강화도 전등사 대웅보전 닫집과 극락조 등등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되 가슴 찡한 사연이 깃들고 우아한 품격과 다양한 미를 드러낸 미술작품들이 많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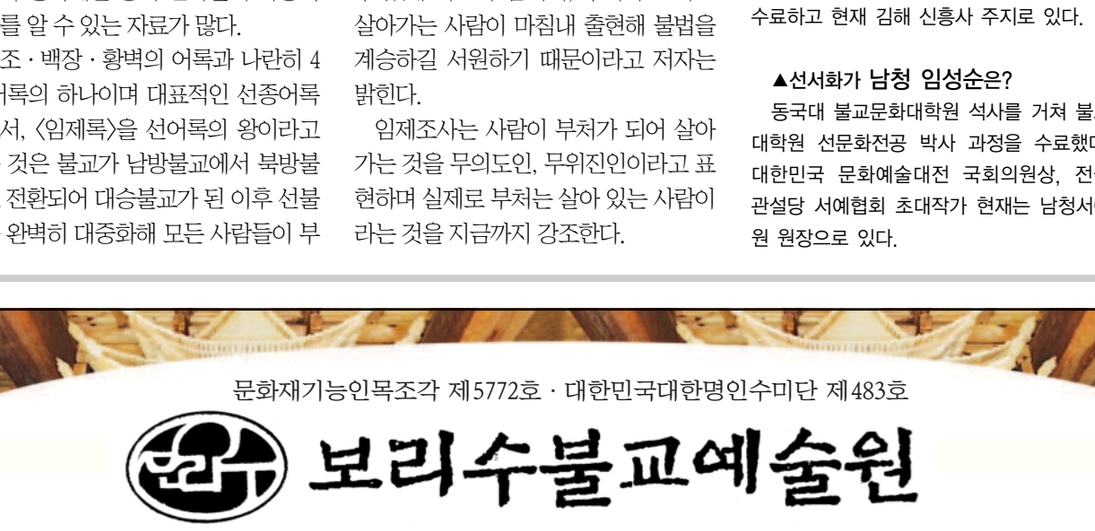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여래사불교대학, 환우 위한 따뜻한 병문안

제7회 인창병원 환우 방문 위로연



여래사불교대학(학장 목종)이 추운 겨울 따뜻한 병문안을 다녀왔다.

여래사불교대학 학생 50여명은 2월 2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인창병원을 방문했다.〈사진〉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환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빠른 쾌유를 발원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각 병실을 방문하고 환자들의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며 카스테라와 과일, 요구르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웃음으로 격려했다. 또한 작은 음악회를 마련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조계종 신도전문 교육기관으로 30여 년 동안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산 동구지역의 복지와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독거노인 반찬배달 등을 실시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설을 맞아 따뜻한 겨울나기와 환우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환자를 비롯해 가족들 그리고 병원 종사자들이 아픔을 잠시라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전주교도소 교정협, 설맞이 사과 나눔행

1월 26일 재소자들에 사과 1,500개 전달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승천, 일광사 주지)는 설을 앞둔 1월 26일 전주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사과 1,500개를 전달했다.〈사진〉 이날 자리는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와 불교 · 기독교 · 원불교 및 일반교화 분과위원장들이 전주교도소 내 전체 수용자들에게 설 맞이 사과를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승천 스님은 설 선물을 마련해준 불교분과 진성 스님, 기독교분과 오성택 목사, 안현숙 원불교 봉공회장, 일반분과 위원장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설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이 정성으로 가져온 사과를 맛있게 드시고 고향의 가족을 생각해 열심히 수용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만 전주교도소장은 "재소자들이 수용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추운 겨울마다 매번 사과를 주셔서 수용자들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정유년 신년하례법회 봉행

회주 월주 스님 "자비의 등불 밝히자"



금산사 본말사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아 원대한 원력과 포부를 세워 보살행을 다짐했다.

전북지역 불교 중흥과 지역발전을 다짐하는 금산사 신년하례법회가 1월 29일 금산사 뇌묵처영기념관에서 열렸다.〈사진〉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과 주지 성우 스님, 익산 심곡사 화평 스님, 익산 관음사 덕림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송하진 전북지사, 정동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월주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당시의 사상적 혼란과 정치적 관행,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균형등을 자비의 등불을 밝혀 변혁시켰다"며 "자비는 일상생활 가운데 불자들이 실현하고 구현해야할 사회적 보편가치이자 정의"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불교에서의 정의는 진실한 생각이며 이는 곧 자비이자 부처님"이라며 "정유년 새해에는 견해를 같이하고 이익을 고르게 나눔으로써 화합하는 동체대비의 등불을 밝혀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45년史 부산불교거사림, 1000회 특별 법회

2월 14일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에서

1972년 김기추 거사 강의 시초
이후 45년 간 월 1회 정기법회
연 평균 20만 재가불자 참석
250명 이상 승 · 재가 법사 초청
종범 스님 특별 기념법석 마련



1994년 10월 25일 부산불교거사림회 회원들과 대중들이 통도사 부산포교당 불지사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모습.



종범 스님(사진)은 1975년부터 상임 지도법사로 부산불교거사림회 회원들을 위한 법문을 펼쳤다.

불교에서 '림(林)'이란 한자의 의미는 특별하다. 숲을 의미하는 '림'은 단순히 '많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그 가운데는 작고 어린 생명부터 큰 동물들의 터전이 되고 안식처가 된다. 부산 불교를 위해 든든한 숲으로 자리해 온 거사들의 모임 '부산불교거사림회(회장 공병수)'가 특별한 법석을 맞이한다.

무려 45년 동안 매달 2째 주 화요일 봉행된 부산불교거사림회 정기법석이 1000회를 맞는다. 이를 기념하며 부산불교거사림회는 2월 14일 오후 7시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에서 제1000회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1000회 특별법회는 개회 전 먼저 축하의 뜻을 담은 시낭독과 축하공연무대가 마련된다. 이어 삼귀의 및 보현행원, 반야심경으로 마음을 모으며, 발원문 낭독을 통해 부산불교거사림회 의지를 전달한다.

아울러 부산불교거사림회는 안성이 보현회장 외 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부산불교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한다. 축사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과 류진수 고문(前 부산불교신도회장)이 나선다.

특히 법사 스님으로는 前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 스님을 초청한다. 거사림회가 종범 스님을 1000회 법석에 모신 이유는 특별했다. 1975년부터 상임지도법사로 부산불교거사림회의 주춧돌처럼 법석을 지켜줘 거사림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부산불교거사림회는 "법석을 기획할 때 만장일치로 스님을 모시기로 마음 모았다"며 "1000회 동안 종범 스님이 법문해주신 것이 총 359번이다. 중앙승가대 총장을 하시고 바빠지셔서 매달 참석이 어려우셨는데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찾아 주신다"고 감사했다.

이어 "종범 스님 은덕이 정말 크다. 스님이 오실 때 마다 청중이 많이 왔다. 그 때는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아 법문에 대한 목마름이 컸다. 42년 동안 저희 대중에게 부처님의 뜻을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거사림회는 1972년에 창건됐다. 부산 영도 도서관에서 3주간 열린 백봉 김기추 거사의 〈금강경〉 강의에 참석한 불자들이 모인 것이 시초가 됐다. 더 수행하고 배우기 위한 발심이었다. 이후 매회 법회 마다 참가인원이 증가,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부산 서면 부전예식장과 새마당 예식장 등에서 법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상임지도 법사인 종범 스님과 지안 스님, 지오 스님 외에도 고암 스님, 경봉 스님, 향곡 스님, 무진장 스님, 경산 스님, 구산 스님, 진제 스님 등 당대 최고의 선사와 이기영 박사, 홍정식 교수, 정병조 교수 등 350여명 이상의 승 · 재가 법사가 자리해왔다.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기 힘들었던 당시 신도들에게는 최고의 법석으로 자리매김하며 연 20만 명의 불자들이 참여했다. 법석 뿐만이 아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정리해 담아 〈연꽃처럼 아름답게〉와 〈서천에 돋는 해, 광명의 지혜〉 등을 출판해 무료로 나눠주며 법공양 운동을 펼쳤다.

공병수 회장은 "우직하게 한길로 가고자 했던 회원들의 열정이 만든 결과이며 부처님의 가피이자 기적"이라며 "이 법회가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빈여의 등불처럼 영원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BBS 22주년, 방송포교 위한 불사 동참의 장

2월 1일 부산BBS 10층 법당서 후원금 전달식 개최



BBS 부산불교방송이 2월 1일 개국 22주년을 맞아 후원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관 스님, 수불 스님, 주석 스님, 이대원성 연꽃모임 회장.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 이하 부산BBS)이 개국 22주년을 맞았다. 이를 축하하며 부산BBS의 숙원 사업인 북항 신사옥 건립 동참 후원이 이어졌다.

부산BBS는 2월 1일 부산 사옥 10층 법당서 후원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서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 이대원성 연꽃모임 회장 및 회원 10여명은 미래 방송 포교를 후원하며 기금을 전달했다. 기금은 각각 원오사 1000만원, 대원사 1000만원, 연꽃모임 2000만원이다.

전달식에서 이대원성 회장은 "지난 1월 16일은 연꽃모임 40주년이었다. 짧게 축하하는 자리를 열기보단 영원한 잔치로 남을 도량 불사에 참여하기로 모든 회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지난해부터 사옥 건립을 후원하고자 했는데 개국 22주년을 맞아 동참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전달했다.

사장 수불 스님은 "신사옥 건립은 부산 불교의 자존심을 넘어 한국불교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오늘 동참해준 정관 스님, 주석 스님 그리고 이대원성 회장님께 깊이 감사하다"며 "오늘 개국 기념일임에도 큰 행사 없이 진행하는 것은 허례의식을 버리고 모든 힘을 모아 불사 건립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BBS는 개국 22주년을 맞아 특별생방송을 진행하고 방송 포교를 위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생방송에는 수불 스님, 주석 스님, 선상신 사장, 이대원성 회장, 지은아 아나운서가 참여했으며 BBS불교방송의 방송포교를 이끌어갈 10만 공덕주를 모시는 '만공회'의 활성화를 기원했다.

부산BBS는 지난 1995년 2월 1일 부산 · 경남 불자들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출발했다. 개국 22주년을 맞은 올해는 '세상의 희망인 당신을 응원합니다'란 슬로건으로 시민과 불자들 곁으로 더욱 다가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성미 기자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사교과에서 활안큰스님 "석문의범" 특강이 있습니다.
◇ 원서교부 : 2017년 1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7년 3월 7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김익순교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천도재의식 및 권공의식, 작법무
◇원서교부 : 2017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3월부터 3개월간 예수재의식 특강이 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부처님의 경전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크게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경전을 전해 받는 사람은 큰 경사를 얻고 일체 중생은 윤택함을 얻는다.

– 불본행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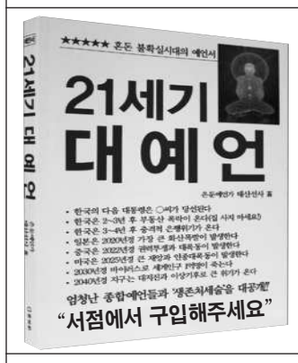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 점안식,
시다림, 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노인 요양 복지시설 사업에 뜻이 있으신 분을 기다립니다.

파주시에 있는사찰내 부지
약 1000평 활용 가능함.
꼭 뜻이 있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010-4718-4123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불사용 달마도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불사나 선물용으로 청암 달마도를 저렴하게 친필로 그려 드립니다. 10매 이상은 사찰명과 스님법명 넣어 드립니다
규격 40cm×60cm 1매 6천원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청암 달마원

30년전 곡성 태안사에서 김천 청암사로 공부하러 떠나신 정윤스님을 찾고 싶습니다

정윤스님께서 광고를 보시면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주에서 오연아 합장)
010-2349-9941
010-4604-4083

모십니다

위빠사나 명상 같이
지도하실 분을 모십니다
(스님 또는 재가자)
02-992-0110

운전기사 채용

60대 전후, 절에서 숙식하고 수행
하면서 남은 여생을 같이 보내실 분
010-8640-0108

100일 기도할 도량을 찾습니다

(비구 입니다)
010-3288-9406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0068

'성명학'과 '도장'으로

월300~500만원 수입을 창출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연락 주세요.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가능
수강료 : 직접면담 후 결정
강의 : 덕인성명학 연구원 (원장 이상민)
010-4686-3588, 02-562-835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역 2호선 5번출구) 역삼하이츠 905호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중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포교원 인수 하실 분

– 비구, 비구니스님
– 초기경전 강의 및 수행지도 가능하신 분
– 사천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에게 상응할 수 있는 학식과 지식을 갖추신 분
– 반드시 보문정사 주지스님과 면담 후 결정됨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37-8번지 2층 보문정사 포교원
연락처 : 총무 010-5654-214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오래된 폐질환, 아토피, 피부병 상담



약사불 (藥師佛)
약사불은 질병을 고쳐주고 재난에서 구해주며 음식과 옷을 주는 부처로 왼손에는 약단지를 들고 있다.

대대로 세속 되어진 업과
상속 되어진 업,
음양의 부조화로
병마로부터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하여...

인간의 육체는 무상한 것이어서 의식하지 않아야 하나 중생들이 도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여러 겁을 지나면서 온갖 고통을 받게 된다.

오직 부처님 만이 좋은 의사가 되어 법의 약을 주시니 이 법을 받들어 정성껏 행하는 이는 병마를 이길 수 있다.

– 오문 선경 요용법 – 중에서

만병의 근원을 소멸하여 맑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 와서 행복한 삶을....

천태산 월광사
충남 공주시 의당면 비게실길 45 / 전화 010-4573-0940 사무장 올림

2017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9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8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9기 수강생부터는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도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7년 3월 14일 ~ 9월 26일까지
②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높다는 것도 언젠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언젠가는 없어지며, 태어난 자 언젠가는 죽어가고, 모이는 자 마침내는 흩어지네.

- 법구경 -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예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인법당. 요사채 94㎡, 토지 443㎡
- 마을 사찰. 운영 잘되고 위치 좋음. 주차 가능함
- 양도가액 : 1억1천만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 (대표 : 이규철)

■ 비밀보장. 방문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 (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신도시 포교원
◎ 부지 : 600평 ◎ 번화 중심가
◎ 법당 : 40평 ◎ 법당 : 60평
◎ 요사 : 12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협의 ◎ 양도가 : 10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 총부지 : 183평
- 건물 : 60평, 법당, 요사채(방 4개), 화장실2개
- 정원,주차장 위치 좋은 암자
- 양도 : 몽땅 2억 2천

010-2595-7752 전무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02 다산타워)

사찰(급)안내

- 충북 단양 암자 양도
- 토지 4400㎡. 건물면적 76㎡
- 주변산,민가없음,앞은 확 트임
- 포장도로 접, 조용한 암자나 토굴
- 가액 : 2억 8천만원(융자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서울에서 접수. 상담.안내가능합니다

(원주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동해 앞바다 (전망좋음)
- 해수관음 도량(7자)
- 대지 230평
- 1층 요사채, 2층법당
- 가액 : 몽땅 4억 3천
- 몸만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사절

010-7441-23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 평수 40평, 3층 건물중 2층
- 교통 위치좋음
- 스님 건강상
- 가액 : 보 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일체 500만원

010-8517-2357

경기도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주택, 아파트단지 밀집지역내 상가
- 2층 106㎡(약 32평)
- 방 2실 법당 거실 주방등
- 가액 : 보 1000만, 월55만 시설비 500만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70-8154-9393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성지 금정산 등산로접
- 토지: 600여평 점유, 해발300m
- 건물: 법당10여평,창건80년
- 주지실, 요사채(건축물 대장)
- 기적같은 산신기도 암자
- 약수터, 주말 등산객 많음
- 가액 : 몽땅 2억 5천만원

010-9906-3631 혜관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1,500만, 월 80만 시설비 절충

010-3112-0480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3753-7844

사찰 하실 분

- 위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부여 IC 5분거리
- 대지 200평
- 건평 77평(등기면적) (40평 별도 공간)
- 임야 155평 산속별장(다용도 사용가능)
- 가액 : 3억 7천

010-5398-252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금액은 1000만원

010-9902-396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소재
- 부지 : 12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청기와 단청)
- 요사채: 35평(2층)
- 종무소 : 35평 (1층, 공양간포함)
- 가액 : 7억
- 특징 : 대덕산자락에 위치한 도심포교도량임

- 위치 : 경산시(갓바위 입구)
- 부지 : 35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2층, 목조, 단청)
- 요사채: 30평(1층))
- 상담소 : 25평(별채)
- 가액 : 6억원
- 특징: 계곡을 낀 대로변 (8차선)에 위치한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전국소재사찰 및 절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산경남사찰전문

'사찰직방' 울산경주포함

- 네이버 - 블로그에서 "부산경남사찰매매" 치셔서 사찰 양도, 임대하실 분, 구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busansachal@naver.com

010-6838-3140 최이사

부산 연제구 연산동 365-18

사 찰 안 내

(시세이하 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격 협의 가능(현지답사후 협의 요망)

010-8014-7707

010-3832-7157

사찰(급)안내

- 위치 : 밀양시 단장면
- 854평, 산신각, 요사채
- 방 14개, 경치 최고
- 사찰 겸 고시원, 건강원 최적지
- 가액 : 7억

010-6763-886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 생극면
- 대지 513평, 법당 외 4동
- 계획관리 전망좋음
- 가액 : 1억 7천

010-6341-34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상계동 수락산입구
- 평수 : 약 40평
- 가액 : 전세 보증금 2억에 월 40만원 시설비 별도

010-9177-7842

사 찰 안 내

- 위치 : 명당 경북 영주
- 2,600평, 2차 4차도로 접
- 교통좋은 숲속 상수도 신시가 1Km
- 가액 : 18억 협의가

010-4334-527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200평, 건평 40평, 법당, 요사채, 방 3개
- 친견실, 공양간, 샤워화장실 2개 밖에 남녀화장실, 산신각, 용왕 연못 등 시설 일체 방문 요망
- 가액 : 2억 5천 8백만원
- 급 양도

010-5427-3699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 VIP

※ 제품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불기 2561(2017)년

선암사 부설 태고경남전문강원 5기생, 경전 연구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에서 전문강원을 운영중이며
5기생 및 경전 연구반 학인 스님을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5기생

■ 모집인원 : 00명
■ 수강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3시 30분까지**
■ 응시자격 : 태고종 승려, 타 종단 스님 가능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일 부터 ~**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입학원서(종무원 비치)
■ 수 강 료 : 한 학기 30만원(교재비 별도)
■ 강주스님 : 운범 스님

과정 \ 학기	1학년	2학년
교 재	초발심,사미율의,치문	서장,도서,선요,절요

경전 연구반

■ 모집인원 : 00명
■ 수강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 5시 30분까지**
■ 응시자격 : 태고종 승려, 타 종단 스님 가능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일 부터 ~**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입학원서(종무원 비치)
■ 수 강 료 : 한 학기 30만원(교재비 별도)
■ 강주스님 : 운범 스님

※ 경전연구반 : 학장스님과 면접 후 결정

과정 \ 학기	1년	2년
교 재	능엄경	금강경

원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종무원 ☎ 전화 055)298-3634 / 팩스 055)298-363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19 (양덕동) 현대오피스빌딩 1201호

태고총림 선암사 부설 경남전문강원 학장 법성 / 강원장 호명 합장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감정 실린 결정은 NO!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들을 따라서 말까지 하면 후회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실린 말은 자제하고 기다려 보세요.

한번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만 인내하세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는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조금 쉬고 몸도 마음도 편할 때 결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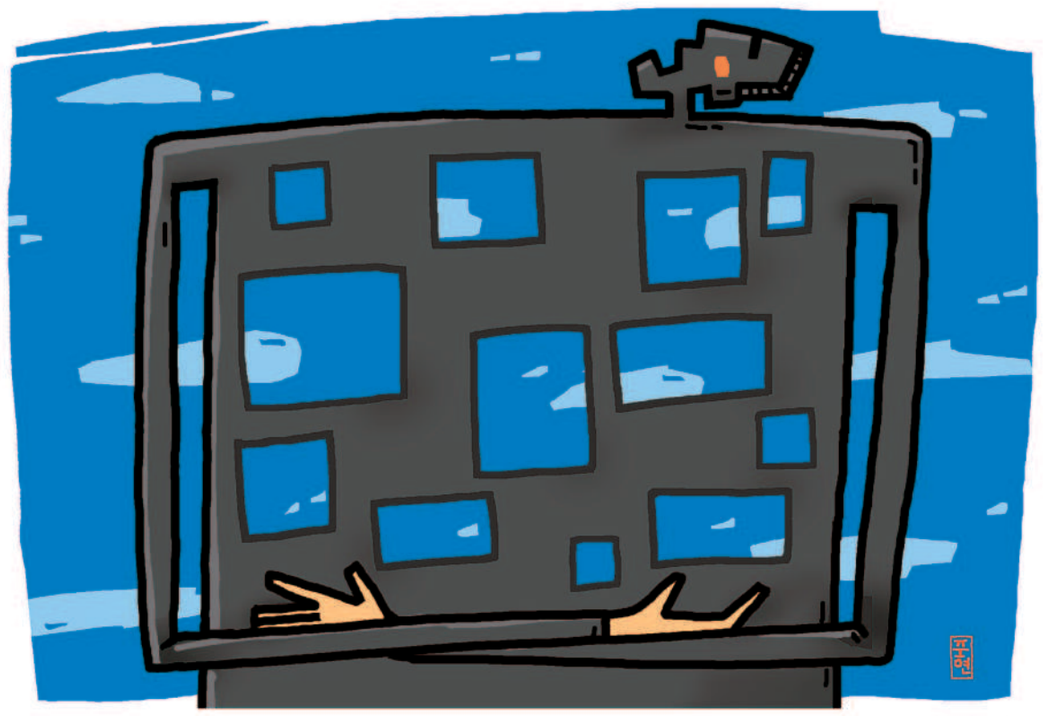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황선미(시인)

隨處作主, 내 삶의 주인공은 나

공손과 존중은 나를 성장시킨다

부화 직전의 병아리가 껍질을 안에서 쪼면 어미 닭은 바깥에서 알을 쪼아서 껍질이 잘 깨지도록 돕습니다. 이를 '줄탁동시(啐啄同時)'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안과 밖에서 동시에 협력하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조언과 가르침을 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 가르침을 공손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겸허한 마음도 줄탁동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육체적으로 볼 때 성인에 가깝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소년에 가깝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도기로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미성숙한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청소년'의 라틴어 어원도 '성인의 모습으로 성숙하여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은 성인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자신의 내면에 눈을 뜨면서 부모나 선생님 등 누군가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컸어!'라며 부모나 선생님의 조언과 가르침을 참견이라 여기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심은 부모의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거부를 하는 거죠.

《법화경》에는 '화택삼거유(火宅三車喩)'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호가 집에 돌아왔는데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노는 데 정신이 팔려 집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선생님의 조언을 거부하는 청소년들처럼 말이죠. 먼저 설화를 읽어보시죠.

불타는 집 탈출기

부처님은 지혜제일이신 사리불에게 성불을 약속하시는 수기를 주시며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를 위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불타는 집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큰 부자와 여러 명의 자식들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서 사방은 온통 불바다가 되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태울 기세였죠. 부자인 주인은 불붙은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아이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치며 놀기에 정신이 팔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불길이 몸에 닿아 고통이 일어도 마냥 불타는 집에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뛰놀며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집에 불이 났으니 빨리 나오너라."

부자 아버지가 소리쳐도 장난만 좋아하는 아이들은 불이 무엇인지, 불에 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집의 문은 하나뿐이고 너무 좁아서 아이들을 업고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도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니 그것으로 타일러서 불타는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이 평소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하던 장난감이 여기 있단다. 지금 나와서 가지지 않으면 후회할거야. 양이 맨 수레, 사슴이 맨 수레, 소가 맨 수레들이 지금 대문밖에 있으니 어서 나와서 타고 놀렴.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어서어서 불타는 집에서 나오렴."

아이들은 아버지가 말한 장난감이 갖고 싶어서 서로 밀치며 불타는 집에서 뛰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무사히 나와 길거리에 앉아 있음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버지 먼저 주시겠다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의 장난감을 어서 주세요."

겸손 · 존중은 거친 감정 다스려

'자타일시성불도' 근거가 돼

어려움 이기는 만능 만트라는

자기비난 아닌 존중감 키워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약속한 수레보다 더 훌륭한 칠보로 만든 큰 수레를 골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모두 사랑하는 아이들임으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나누어 주었죠. 모든 아이들은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즐거워했습니다.

-《법화경》 방편품 중에서

삼귀의가 주는 선물, 겸손과 신뢰

부호가 양거(羊車) · 녹거(鹿車) · 우거(牛車)를 주며 불난 집에서 아이들을 구해낸다는 내용의 이 설화에서 부호는 부처님을 상징하고, 불타는 집은 탐욕과 미혹이 들끓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또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중생을, 세 수레는 삼승(三乘, 성문 · 연각 · 보살)을, 칠보로 장식된 수레는 모든 중생의 성불을 의미하는 일승(一乘)을 상징합니다.

경전의 비유는 이런 교훈이 깃들어 있지만, 이 설화를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접목해서 조금 달리 해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불타는 집에서 살던 아이들은 청소년 여러분들입니다. 아이들을 구하려는 부호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되겠군요. 하지만 부모님과 선생님의 "불이 났으니, 어서 나와라"는 말에 '어른들은 우리 세대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생각하며, 그 말을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맙니다.

청소년기는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공손)과 존중'입니다. 겸손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거친 감정을 다스릴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삼귀의(三歸依)를 곱씹어보길 권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귀의불).'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귀의법).'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귀의승).'

예불이나 의식을 할 때 행하는 '삼귀의'는 겸손과 신뢰(존중)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가르침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존중과 신뢰의 힘은 스스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장합니다. 신뢰는 나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해 '자타일시성불도'를 이루는 동력장치와 같습니다. 삼귀의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다음에는 삼귀의의 대상을 부모님이나 선생님, 평소 존경하는 위인전의 주인공으로 확대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힘이 되는 만능문장 만들기

스스로를 신뢰하고 겸손하게 행동해도 하던 일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를 비판하거나 낙담하며 좌절하기 보다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신뢰할만한 주변의 어른에게 조언을 얻거나 친구들과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럴만한 도움의 대상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는 먼저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에게서 답을 구해 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달라이라마, 이순신 장군 등 존경하는 성인이나 역사적인 인물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상상을 합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 달라이라마는 친절과 미소, 이순신 장군은 용기 등 각 인물에게서 각각의 긍정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스스로에게 답을 구해봅니다. 실패나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의 비난 못지않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날선 비판은 자신을 향한 학대와 같습니다. 비난보다는 상처받은 자신을 위로하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능문장을 떠올려 봅시다. 예를 들어 "힘들면 하늘을 봐!", "잘했어.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난 믿을만한 사람이야" 등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만능문장(眞言)을 만들어 되뇌어 봅니다. 겸손과 신뢰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바탕이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만능문장은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佛事의 모든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일주 올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56-1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5738-3859.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10㎜) 30,800원 (무료배송)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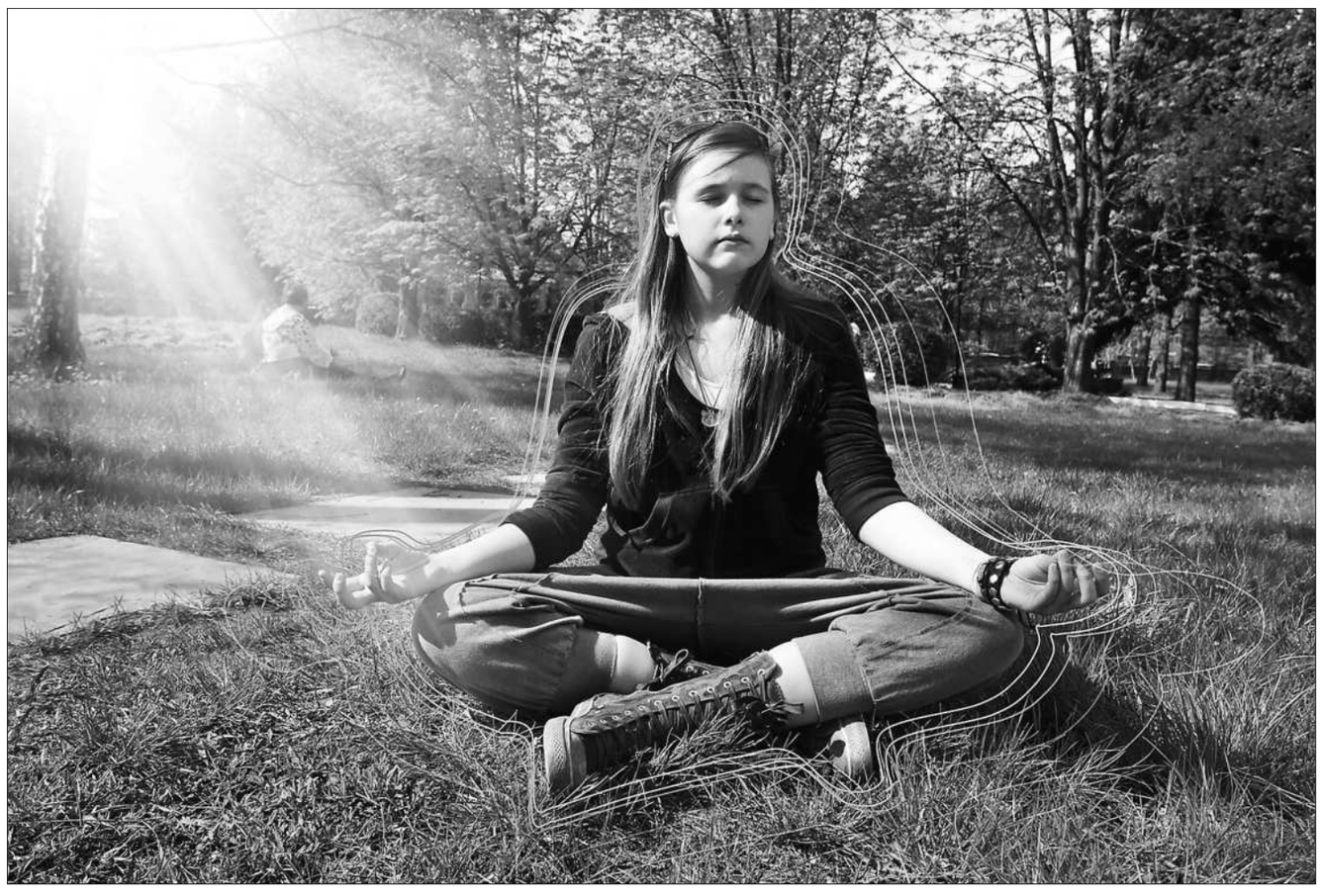
■ 주문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샐리 켐튼(명상 강사 · 저널리스트)

〈5〉 의식에 관한 명상

내면의식서 뛰는 '맥박'은 생명 근원



만트라 · 호흡 수련 지속하면
집중 대상 명확히 드러나게 돼
자신과 기법 하나로 믿는 순간
의식은 존재 근원 '참자아' 도달

명상 기법은 수련의 '도구'

명상 초보자들은 보통 순수의식에 대한 명상이 심화된 수련이라고 생각한다. 각성은 대단히 현묘하고 실체를 붙잡기 어려워서 그 기반을 닦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면적인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오묘한 무언가를 얻으면 이 수련의 맥은 저절로 짚을 수도 있다. 사실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명상에 사용하는 기법은 어떤 기법이든지, 아무리 붙들려고 애써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인도에는 "기법이란 신전으로 몰고 가는 마차와 같다"라는 말이 있다. 신전에 도착하면 마차는 떠나야 하는 법이다. 사실 명상 기법이라는 마차는 신전에 도착하기 오래 전에 힘을 잃는 것이 보통이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만트라 음은 기운의 맥박 속으로 녹아들고, 시각화된 형상은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공간 속으로 녹아들며, 호흡은 느려지거나 멈춘다. 그러고 나면 벌거벗은 의식과 내면의 감각, 근본적인 기운의 리듬만이 남는다.

이 지점에 이를 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익힌 명상 기법을 잃었다거나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기법이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뜻이다. 마음이 중심에 자리를 잡고 고요해지면, 더 깊은 차원의 각성이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어 명상의 주 대상이 된다.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비유를 보자.

집이 완공될 때까지는
버팀목이 집을 받치나
집이 완공되면
버팀목을 뺀다
집은 바르고 넉넉하게
스스로 선다

물론 의식은 집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다. 의식은 영원한 주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말한 '존재의 바탕'이다. 의식 명상은 대단히 직접적이어서, 수련의 핵심을 찰나에 체험할지라도 우리의 사고나 시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준다.

나는 주로 만트라로 명상을 시작한다. 만트라에 의식을 모으거나, 호흡을 따라가거나, 날숨의 끝에 있는 공간을 찾는다. 보통 명상을 시작한 뒤 30~40분이 지나서 생각의 흐름이 느려지고 집중의 대상이 각성 속으로 녹아들면 내 마음은 생각의 밑바닥에서 고동치는 정묘한 기운에 모아진다. 그 지점에서 내 명상은 의식의 에너지 장에 뿌리를 내린다. 내게는 이 수련-각성 안에서 끊임없이 고동치는 기운의 맥박과 더불어 현존하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다.

그런 순간을 찾아보자. 기운의 맥박 속에 현존하는 것은 우리가 명상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편안하게 앉는다. 눈을 감고 내면의 의식을 떠올린다. 무엇을 찾는 시간이 아니다. 두 눈을 감았을 때 내면에 무엇이 보이는지, 내면의 눈으로 내면세계를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파란 빛이나 회색의 장(場)이 보일 수도 있고, 점묘화처럼 작은 빛점으로 가득한 희뿌연 어둠이 보일 수도 있다. 산스크리트에서 칫타(chiita)라고 하는 정신의 질료(내면의식)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든 생각과 감정, 지각, 감각 등이 떠오르고 가라앉는 기운의 바탕이다.

의식의 맥박 찾기

이런 내면의식이 지닌 역동성을 살펴보라. 육체적 차원에서 맥박은 심장박동으로 나타나지만, 보다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면 심장박동 너머에 미묘한 맥박이 뛰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미묘한 맥박이 바로 감지되지 않는다면 우선 심장박동에 마음을 모아라. 미묘한 진동이 느껴질 때까지, 혹은 맥박이 전신에 퍼지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기운의 맥박이 느껴지면 그 미묘한 맥박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 의식을 모아라.

이런 정묘한 맥박은 산스크리트로 '스판다(spanda)'라고 한다. 고동, 진동을 뜻하는 말로, 카슈미르 시바파의 핵심 경전인 〈스판다 카리카(spanda Karikas)〉에 따르면, 스판다는 모든 생명과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기운의 근본이 되는 자극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이 맥박을 느끼는 것은 원초적이고 거대한 생명력의 발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이 맥박은 호흡과 박동, 생각과 감정 너머에 있는 기운이다. 또한 모든 명상 체험의 근원이다. 명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진동이, 이 정묘한 맥박이 자신을 명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탄트라 경전에서는 이 맥박을 쿤달리니의 순수한 표현, 내면에 있는 진화의 힘이라고 한다. 시바파 경전인 〈탄트라 사드바바(Tantra Sadhbbava)〉는 만트라를 활성화하는 힘이 원래 수행자의 마음 안에 있다고 전한다. 명상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 고동을 감지할 수 있다. 이 고동치는 기운은 마음을 명상의 세계로 서서히 안내한다. 이 기운에 마음을 모으고 따라가면 기운의 근원, 즉 참자아의 궁극적인 고요함에 도달한다.

이 정묘한 진동을 감지했다면 이 진동과 함께하라. 만트라라고 생각하고 이 진동에 모든 마음을 모아라. 마음이 다른 데로 간 것을 알아차렸다면 바로 진동으로 되돌려라. 진동과 함께할 때 존재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곧장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각성을 알아차리거나 생각을 관찰하는 기법 중 몇 가지는 제2장에서도 다뤘다. 다음 수련은 〈비기아나 바이라바〉에 나오는 수련을 응용한 것으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요가 수행자들이 했던 방법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두 눈을 감는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콧구멍으로 들락거리는 호흡의 흐름에 의식을 모은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갈 때마다 마음을 호흡으로 되돌린다. 호흡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다.

이제 몸이 완전히 텅 비었다고 상상한다. 피부는 풍선처럼 얇은 막이다. 그 피부 안에는 공간만이 존재한다. 몸이 공간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공간이 사방에서 당신을 감싸고 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숨구멍으로 공간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숨구멍을 통해 공간을 내쉰다는 느낌으로 호흡한다. 피부는 미세한 구멍이 많은 섬세한 막이다. 그 피부로 숨을 쉰다. 당신은 바다처럼 드넓은 공간에 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이 거대한 공간 속으로 편안하게 녹아 들어간다.

수련 마무리하기

준비수련이 정신을 내면으로 향하게 했다면, 마무리수련은 내면에 쏠렸던 마음을 외부로 나오게 한다. 수련 마무리는 명상 중에 일어난 기운을 담아서 이를 타인과 나누는 의식이다. 마무리 과정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수련을 함께해 준 몸과 마음에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몸과 마음의 도움이 없었다면 명상을 시작도 못했을 테니, 비록 몸이 꼼지락거리고 마음이 사방을 휘젓고 다녔을지라도 고마움을 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수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수련에 힘을 부여한 은총과 기운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련을 봉헌한다. 고개를 숙이고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제 명상수련이 모든 존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명상이 세상의 평화와 조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축복할 수도 있다. 특정인의 행복을 위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특정 상황에 평화와 조화와 치유가 깃들 수 있도록 자신의 수련을 봉헌할 수도 있다.

각각의 수련에는 깨달은 명상가의 계보에서 나오는 기운과 그 권능이 실려 있다. 시간을 내서 소개한 수련을 하나하나 실험해보고, 명상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라. 한 가지 수련이 맞지 않으면 다른 수련을 시도해보라.

물론 한 가지 수련에 깊이 몰입하지 못하고 이 수련에서 저 수련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니며 기법에 중독되라는 말이 아니다. 기법은 목적이 아니라 각성으로 가는 수단임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어느 때에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정체된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수련이 있는가 하면, 사랑에 불을 붙이는 수련도 있다. 때로는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특효약인 수련도 있다.

여러 수련을 놀이를 하듯 즐겁게 하면 어떤 수련이 내게 잘 어울리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제각각 유일무이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만이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적용되는 최고의 방법이란 없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서 고요함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최고의 명상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다양한 수련을 실제로 해보는 수밖에 없다.

기법을 수련할 때 유념해야 할 원칙이 하나 더 있다. 사람들이 명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신과 기법 사이에, 자신과 목적 사이에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명상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신과 기법과 목적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모두 해결된다. '하나 됨'의 바바나는 대단히 강력해서 그 효과를 믿지 않더라도,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명상의 질이 달라진다.

이 글은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한문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 11 기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강생 모집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목 : 49재 의식(평염불), 천수바라, 도량게, 작법무, 사물 다루는 법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미륵당길 70 봉업사 (☎ 031-676-0900)
■ 시 간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1년 과정)
■ 비 용 : 입회비 200,000만원, 수강료 무료
■ 개강일시 : 2017년 3월 3일 오전 9시

특강
법고무 - 문곡스님
성명학 - 삼규스님
태평소 - 시우스님

연락처 ▶ 회 장(관희) 010-8290-6623
강 주(문곡) 010-3727-0870
총 무(진효) 010-5306-0856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관희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2자
◀ 대북
▶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대행 스님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다 모두 되놔라!

첫째, 강당이 아직 안 돼서 모두 길에 서 있는 것이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먼 데서 오셨는데 앉을 자리나마 풍족해서 걱정 없이 만들어 드려야 할 텐데 제 덕이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봄을 맞이한 듯 날씨는 벌써 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사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 봄을 지니고 항상 봄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어깨를 쭉 펴고 사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똑같이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온 분들도 있으니 그렇기도 하고 또 오래 됐어도 새로 오는 분들보다 외려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오늘은 상근기에서 좀 얘기하고 또 중근기, 하근기로 내려가도록 하죠. 간단간단히 우리 비유를 해 봅시다.

상근기에서 본다면 만약에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게 있다면 그것은 윤회법이요, 인과법이요, 과보를 받는 법이요, 또 윤회하는 법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생사는 면치 못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면 그건 윤회법이요, 인과법이요, 과보를 받는 법이요, 윤회하는 법이라 생사를 면치 못한다.'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잘 생각하셔서 넘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뜸을 들입니다. 허허허.

그리고 부처를 이루려면, 즉 자유인이 되려면 주인공(主人空)의 성품(性品)을 발견해야지 만약에 성품을 발견치 못한다면 그것은 외도를 범하는 격이 되죠. '유의 법'만의 떡 하나를 집어먹고 그게 걸려서 모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와 같죠. 그러나 그 정신세계 무(無)의 떡과 유(有)의 떡을 한데 합쳐서 집어삼키면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기가 이를 데 없이 만사가 오케이죠. 그것 차이가 그렇게 무섭답니다. 유의 법 50%의 떡 하나를 그냥 먹고 지내는 거와, 무의 법 50%의 떡과 유의 법 50%의 떡 둘을 한데 합쳐서 하나로 삼킨다면, 닥치는 대로 삼킨다면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모릅니다.

부처란 업보도 없고 인과도 없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기능, 한 견해, 한 소견에 집착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집착을 한다면 그것은 자아부처의 주장자가 허용치 않습니다. 이건 상근기의 얘깁니다. 절대 스스로서 허용치 않습니다. 부처란 이 지킨다는 게 없기 때문에 범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본래 성품(性品)은 항상 공(空)해서 더럽다 또는 깨끗한 법이 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닦는다, 증득한다 이런 것도 없으며 원인과 결과도 없습니다. 부처는, 자아부처는 계를 지키지 않으며 그 반면에 범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는 선을 닦지도 않으며 악을 짓지도 않습니다. 부처는 정진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작위(作爲) 없는 자유인이라서 어떠한 것에도 집착한다면 스스로서 주장자가 허용치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될까, 이것이 죄가 안 될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에, 이 말에, 이 뜻에 모든 걸 한번 기울여 보신다면 한 찰나에 넘어갈 수도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께서 나쁘고 좋은 건 다 아시죠? 이거 하면 나쁘다, 좋다 이런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도 강도질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알면서 합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이나 사기질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번연히 나쁘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공' 하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하고부터, 탄생을 했다 하면 주인공입니다. 생명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 이것이 종합해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부처인 줄로 아는 것도 또는 부처가 아닌 줄 아는 것도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주인공이자, 주인공이 과거로부터 벌여 놓고 어저께 벌여 놓은 게 오늘에 닥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저지른 것 당신이 해결해라.' 이거지, 누가 대신 아파 주고 대신 죽어 주고 대신 해 주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가 저질렀으면 자기가 거둬야 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자기가 잘못 저질렀으면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이요, 자기가 잘했으면 자기가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을 이끌고 성품을 발견해서 제대로 걸음을 걷게 하려면 자기가 저지른 것 자기한테 되놔라 이 소립니다.

자기가 본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어른이 됐으니까 일을 하는 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공이 다 일들을 하고 모두 행하고 생활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딴 놈이 해 주는 거 없죠? 각자 하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현실에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 주인공한테 되놓으라는 거고 되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입력은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거는 한계가 없고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기가 저지른 거 현실에도 자기가 저지르고, 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모든 걸 당신이 하는 거니까 몰락 당신한테다 놔라 이 소립니다. 그렇게 자기가 저지른 거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기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생활 전체가 바로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다 되놔서 입력이 되게 해라 이겁니다. 자기가 한 것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 그 자리에다가 되놔서 되입력이 된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는 대로 현실에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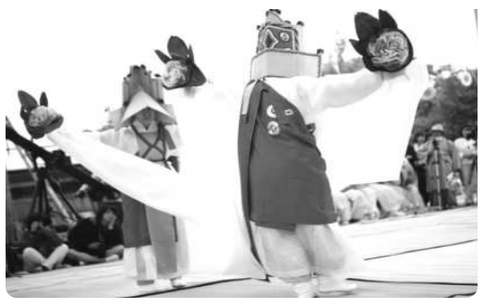
그런데 "주인공에다가 자꾸 놓고 관(觀)하는데도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이건 아주 하근기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모든 건 여러분, 각자 여러분께서 하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의 뿌리요, 주인공이지 다른 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통해서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서 하는 거,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거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하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주인공이 모두 하는 거, 바로 주인공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런 걸 주인공에다 되놔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 주인공의 그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각자 여러분이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하는 일을 주인공한테다 되놔라 이겁니다. 그러니 못 믿고, 믿고 이런 게 없죠.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심성(心性)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인공에다가 관하고 그랬는데, 주인공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되느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데 만약에 부산으로 차를 타고 갔으면 타고 올 수도 있어야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해야 이 끊임없이 이어서 진리의 길이 되는 거지, 끊어진다면 어떻게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못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이 다 잘하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선장을 만들어 놓고, 아까 얘기처럼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하지 않게 가차 없이 쳐서 거기다가 되놓고 잘못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너

☞ 18면으로 계속

제11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제3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불교의식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범음범패)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6개월 수련후 수료증, 1년과정 졸업후 이수증과 법사증 수여(숙식제공 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7. 2. 28.(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문 의 : 포항 보경사 종무소 054-262-1117
교육원 강주스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자기 따로 주인공 따로가 아니라 자기가 즉 주인공!

☞ 17면에서 계속

무도 잘못하고 잘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게 하고 또 잘 안되는 거는 '아, 나를 가르치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돌려서, '너만이 잘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돌려서 놓는다면 '이거는 안되는 것도 알고 되는 것도 아는구나!' 해서 안되는 거와 되는 거 그 가운데서 진짜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리고 타는 그 가운데 있는 거지, 내리고 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되고 못되는 그 가운데에 그 자유인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려면 그 주인공 가운데서 바로 내 성품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게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공(空)했으니까 모든 걸 주인공에 되놔라 이겁니다. 무슨, 못 믿고 믿고가 없어요. 종교를 믿고 안 믿고 이전에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타고 났으면 주인공이자, 바로 주인공이 살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상대를 겪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것을 주인공 자기한테다 다시 '네가 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잖아!' 하고 자꾸 마음의 계발을 시키면서, 발전을 시키면서 창조력을 기른다면 그 가운데서 성품의 작용이 드러나게 되고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모든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발전시키려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를 주인공에다가 모두 되놔라, 잘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잘못하는 건 잘하게 굴려서 놔라 하는 그것이 배움의 지름길입니다.

수억겁 전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우리는 물에서 살다가 겨우 물 바깥으로 나와서 무척 오래 시련을 겪고 인간으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부터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가는 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열을 받아서 골고루 모든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바닷물이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가 생기고 위와 밑이 뒤집어지고 하면서 우리는 그 생명에 관한 건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러한 시련과 고난 이런 모든 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진화돼서 사람으로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생사에도 교훈이 있지마는 한 찰나에 살아나가는 교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모두 대치를 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생물입니다. 그러한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땅 위로 올라와서 짐승들이나 날아다니는 새들로서 시련을 또 당해야 되고 그 시련을 다 넘어감으로써 진화돼서 인간으로 형성되는 거죠. 사람도 천차만별 가지각색입니다. 짐승에서 갓 나온 사람이 있고, 사람으로 세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사람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느끼고 알고 이런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또 자기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생물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생명들을 내 생명과 같이 아껴라. 살생하지 말라." 모두 이런 말들을 하셨죠. 그것이 왜냐하면 이리로 태어나면 이 부모가 내 부모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이요, 이렇게 되니까 모두 한 번씩 안 겪어 본 분들이 없어요. 부모가 안 돼 본 분들이 없고 자식이 안 돼 본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만 보고서 어찌 남을 업신여기겠느냐는 얘깁니다. 참, 내가 그거는 말로도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버선목이니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허허, 나만 답답한 게 아니겠죠. 상대방들도 답답하겠죠. 그러나 더불어 나도 답답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보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답답하게 '아, 주인공에다가 관했는데도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아이, 참 내! 세상에는 사람이 태어났어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건도 그대로 있는 물건이 없고요. 말도 한마디 했으면 그대로 그걸로만 고정되게 말을 하는 것도 없고요. 보는 것도 그렇고 모두 일체 만법이 다 고정됨이 없죠. 그런데 어찌되는 것만 되고 안 되는 거는 없으리까. 왜냐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야 그 시련 속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가운데서 깨닫죠? 자기가 작업을 하면서 그 한 구멍으로 들고 나는 데에 지금 행을 하는 겁니다. 그 행이 없다면 바로 자기 성품을 발견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이라야만이 자기 성품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되놓아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고 왔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찌 딴 사람한테 미루어서 또 딴 부처님을 찾고 이러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저지르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행을 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지금 하고 가고 있으니까 모두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자식분들에게, 자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저지른 거는 네가 거두어라." 하고 아마 훈계하실는지도 모르죠. 대신해 줄 수 없는 도리가 많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저지르고 여러분이 행하고 과거로부터 행하고 왔던 거, 지금도 행하고 가는 거, 그 여러분이 하고 있지 누가 딴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다가 발부리가 차여서 피가 나도 여러분이 각자 "아이고!" 하고, 자기가 그 순간에는 자동적으로 보현신이 돼서 자기를 어루만진단 말입니다. 딴 사람이 대신 와서 아파 줄 리가 없죠. 딴 사람이 만져 주기는 할지언정 아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생활 자체에서 아프고 좋고 나쁘고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행한 거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되놓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결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거둬라. 너만이 거둘 수 있어!' 이렇게 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숙달이 되고 거기에서 미묘한 법을 발견해 낸다면 감응이 되겠죠. 이것이 차차차차 감응이 돼서 커진다면 이게 바로 성품을 발견해 내는 도립니다.

무조건 "나는 주인공에 관(觀)했는데도 왜 안되느냐?" 하! 진짜로만 했으면 왜 안되겠습니까, 또. 만날 자기 이외의 주인공으로 아니까 그렇죠. 진짜 자기라는 걸 어찌 모릅니까? 자기가 하고 자기가 거두는 걸 어찌 모릅니까? 세계적으로 종교를 모두 믿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타신에게 기도하고 상대를 보고 믿고 찾게끔 전부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물속에서도 헤매고 물속에서 나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그 회오리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러는데도 죽고 사는 걸 헤아리지 못합니다. 또 자식을 낳고, 알을 낳고도 다 그냥 몸소 자기 몸을 던져서 죽어 버리고 이러는 시련을 겪으면서 진화가 돼서 땅 위로 올라왔어도, 땅 위에서도 지금 물주머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형국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형상을 믿거나 딴 데 이름을 믿거나 허공을 믿거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부처님께서도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득이 하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부터 먼저 알아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그 방식이 아니라면 안 되기 때문에, 구멍은 한 구멍이니까 그 한 구멍에다 놓고 가게 한다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죠. 주인공 탓을 하지 말고 가만히들 생각해보세요. 즉 자기 탓이죠. 주인공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의 이름! 왜냐하면 고정됨이 없이 끝없이 돌아가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모두가 고정됨이 없으니까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 주인공 죽는 법은 없죠.

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다 되놔라. '네가 저지른 거라면 네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 네 머리가 잘못 돌아가서 잘못된 거라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그 모든 거를 거기에 맡겨 놓는다면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가서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둘로 보지 않으니까. '주인공!' 하면 전체 거기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개별적인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가 되는 거죠. 몸속의 생명의 의식들도, 모습들도 다 자기가 되는 거죠. 주인공 하나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품의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감응도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타신을 찾아서 어떠한 일이 생긴다, 보인다, 들린다 이런다면 그건 미치는 발광쟁이가 되죠. 내면의 자기 주장자에 의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정의정당하게 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관했는데도 왜 안됩니까? 나는 관하는데도 안됩디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주인공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재주를 부리는 짓을 하니까 그게 안되죠. 진짜로 자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살던 자기가 현실에 사는 자기와 둘이 아닌 주인공이 바로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거죠.

고인 물을 그냥 둔다면 썩어 버리지마는 자꾸 새 물이 들어오고 고인 물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 물은 아주 청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목석이 되는 것이고 또는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내면서 자꾸 굴리면 바로 물리가 터지고 지혜로운 생각이 자꾸 넓어져서 자기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알고 모르고 간에 발견이 돼서 해 나가는 분도 있을 테고 또는 감응이 돼서 희미하더라도 '아, 이거로구나!' 하고 알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공부를 해도 그 도리를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구멍에 들이고 내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이 하는 거라는 것만 알면은 아주 쉽습니다. 자기 따로 있고 주인공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즉 주인공이라는 얘깁니다. 주인공이 전체 하는 일을 주인공에다가 되놔라 이겁니다. 그래야 앞서 입력됐던 것,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이 다 소멸되면서 새로이 넣는 그 입력이 새로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수차에 걸쳐서 해 드렸는데도 그게 납득이 잘 안되고 그러죠? 허허허.

하여튼 아주 오늘, 여러분 각자가 그대로 주인공이라는 것, 여러분 각자가 그대로 주인공이며 그 주인공이 일체를 다 과거도 현재도 지금 하고 가는 것이라는 걸 잘 아십시오. 그런데 일체를 다, 그 주인공 놈이 한 거니까 '주인공 놈 너 알아서 잘 이끌어가야 하지 않아!' 하고 거기다 되놔라. 되놓는 작업을 해라 이겁니다. 처음부터 부처를 찾기에는 너무 이르고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만 한다면 스스로 성품이 살금 살금 살금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일러 드렸는데도 허겁지겁하고 부처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허겁지겁 그냥 날뛰고, 허겁지겁 아무 이름이나 부르고 무꾸리나 하러 다니고, 급하면 그냥 아무한테고 다니면서 묻고, 아무 절에나 이리저리 그냥 다니면서 기복으로 물들고 이렇게 하신다면 십 년, 이십 년이 가도 절대로 자기 성품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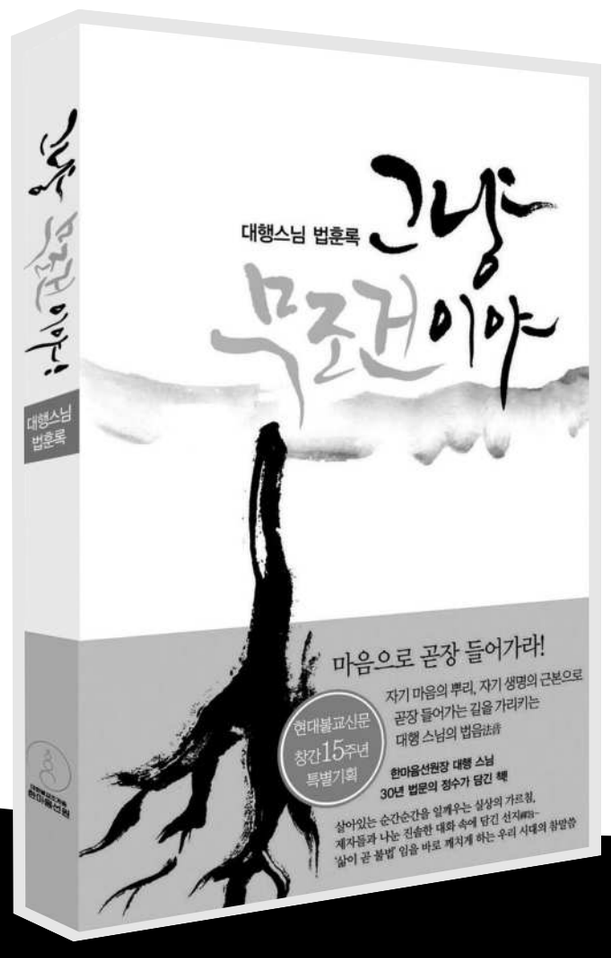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성품을 발견치 못한다면 외도로 전락되죠. 깨친 자유인들은 절대 무슨 '선을 닦는다' 이런 것도 없고, '정진한다' 이런 것도 없고 또 그 대신에 악법도 짓는 것도 없고 범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리를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수억겁을 겪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수억겁을 모두 내려가 보십시오, 어떠한가. 어떠한 시련과 치욕을 겪고 올라오는가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겪고 올라온 거죠.

(다음 호에 계속)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사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 봄을 지니고 항상 봄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어깨를 쭉 펴고 사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 법문은 1994년 2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불자 세상보기 |

'골치·눈치' 아닌 이해의 명절을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최근 3년간 명절 가정폭력 증가세
노부모·부부·형제자매 등 대상 다양
'시월드·처월드' 명절 스트레스 많아

부모대로 자식대로 소통 없이 口業
명절이 갈등 유발… 원인 찾아봐야

50~60대 '낀 세대' 작은 용기 필요
내 믿음 강요보다는 서로간 이해를

최근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명절 연휴 가정폭력 112 신고현황'에 따르면 명절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나는 가족 간 폭행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7,737건이던 신고건수가 2015년 8,491건, 2016년에는 무려 1만622건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폭행의 유형도 부부폭력, 노부모 대상 폭력, 형제자매 및 기타 친인척 대상 폭력, 자녀 대상 화풀이 폭력 등 다양하기 그지없다.

이쯤 되면 명절은 가족 간의 유대와 사랑을 다지는 아름다운 풍속이기는커녕 오히려 가정불화와 더 나아가 가족파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갈등유발자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설과 추석으로 대변되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애써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다만 이제는 명절나기의 현대적 함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되돌아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동안 이야기되던 명절증후군은 며느리가 명절 때 시댁에 가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총칭하는 말이었다. 그래서 '시월드'란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른바 '처월드'로 힘들어하는 사위들의 명절증후군도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한다.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의 출발점이자 디딤돌이 되어야 할 가족관계가 '시월드'와 '처월드'로 인해 흔들린다면 그 집안의 평온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먼저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 간 배려하고 위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명절에는 각자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누구나 힘들어 하기 때문이다. 자식은 자식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상대방에 대해 할 말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말을 섞다보면 또 다른 갈등만 낳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절증후군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번쯤 같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예컨대, 명절연휴 때 몇 시간씩 힘들게 고향 가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 미리 성묘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망설여지던 일이 요즘은 오히려 익숙한 명절 풍경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명절나기가 오히려 가정불화의 원인이 된다면 이를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생활환경은 더 이상 대가족제도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삼는 농경사회가 아니다.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와 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드는 21세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이 삶의 단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당연한 도리로 여겼던 것이 지금은 반드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명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족 사이의 갈등들은 곧 사회적 비용의 지불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낀 세대'의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의 5~60대는 베이비붐 세대로서 명절과 제사로 상징되는 전통을 지켜왔지만 앞으로 자식들로부터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는 '낀 세대'로 불린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옳은 일로 알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지금 바로 여기서 서로 다독거리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절나기와 부모사랑의 참뜻이 아니겠는가. 이제 더 이상 가자니 '골치', 안 가자니 '눈치'가 되는 명절은 만들지 말자. 그래야 가족의 의미도 더욱 소중하게 와 닿을 것이다.

社說

부석사 관음상 환수는 '必然'

오락가락. 최근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두고 생각난 단어다. 국어사전을 보면 '오락가락'의 의미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월 26일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인도청구소송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바로 항소와 가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의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은 예상 범위였지만, 대전지방법원이 5일 만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예상 밖이었다. 더군다나 같은 법원에서 다른 법률 해석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분명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정부는 서산 부석사의 보존능력을 이유로 가집행을 거부했지만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고가 최선을 다해 보존할 능력이 있다"고 가집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같은 법원 다른 심판부는 "판결이 확정 전 불상을 인도할 경우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입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오락가락한 법원의 결정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런 것은 부석사 측이다. 주지 원우 스님은 "같은 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분명 일본서 반입된 부석사 관음좌상은 한국의 절도단이 저지른 범죄다. 하지만, 점거돼 죗값을 치루고 있다. 반면 일본은 어떠한가. 부석사가 자리한 서산은 왜구 출몰 지역이었고, 왜구의 노략질로 약탈됐음이 분명한데도 사과조차 없다.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 부석사 관음상 환수는 필연(必然)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불교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청년 세대 마음잡는 불교 되자

불교 각계가 2030세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나서고 있다. 증심사의 고시촌 엄마밥상이나 조계사 청년회의 인연맺기 프로그램, 보림선원의 취업 준비 코칭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무료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불교계가 청년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불안에 귀 기울이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단순히 포교를 떠나 우리 미래를 짊어 져야 할 중추세대가 대한민국의 오늘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청년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불자 청년층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불자인구 감소 300만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지만 불자들은 아직 더 큰 시련이 올지 모른다는 걱정부터 하고 있다.

이런 청년층의 불교 외면은 단순히 부처님 가르침 속에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진부한 해법만으로는 이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 여실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는 부모이자 친구의 심정이 돼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라고 한다. 절망의 생채기가 끊임없이 새겨져 이제는 굳은 살이 돼 가고 있다.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나눔과 배려를 통해 자비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이 비로소 희망이라도 이야기 할 수 있다.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밥을, 조언이 필요한 이들에게 식견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에는 스님들이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다가갔다. 새해를 맞아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불교계에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犬主와 반려인, 그리고 연기법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누님이 개를 한 마리 키운다. 내게 '개'는 시골 마당에서 묶어 키우던 기억만이 있던 터라 실내에서 그것도 한 이불 덮고 함께 뒹굴며, 대소변 뒤치다꺼리까지 해주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런데 서울에 강의가 있을 때 누님 집에서 묵으며 개와 생활해보니 녀석이 하는 짓은 영락없는 사람이다. 생김새는 개가 틀림없지만 함께 사는 사람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따르고, 그 사람의 기분까지도 읽는다.

조카들은 용돈 줄 때만 나를 반기는데 녀석은 내가 아무리 밤늦은 시간에 가도 홀로 일어나 팔딱팔딱 거리며 반가워 까무러친다.(그러면서도 용돈은 요구하지 않는 센스!) 그렇게 녀석과 정이 들어가면서 왜 요즘 '애완견'이라는 표현 대신 '반려견(犬)' '반려묘(猫)'라는 말을 쓰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내가 느꼈듯이 그들은 단순한 귀여움의 대상인 '살아있는 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반려)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리라. 한데 어느 날 녀석과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견주님들은 반려견들의 목끈을 꼭 착용하시기를…'이라는 문구를 보았다.

'반려(伴侶)'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자'라는 말을 쓸 때 '한 개' '하나'가 아닌 '한 쌍'을 염두에 둔다. 즉 '반려'라는 말은 독자적으로 성립되는 말이 아니라 주고받는 상대가 있어야만 쓸 수 있다. 그렇다면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에 대한 시각을 다르게 하려는 차원에서 '반려견(묘)'이라 부르려면, 함께 사는 사람은 '견(묘)주'가 아니라 '반려인(人)' 정도로 불려야 하지 않을까? 한쪽은 '주인'인데 어떻게 다른 한쪽이 '반려견(묘)'일 수 있을까? 반려라는 말은 소유자-소유물, 주인-종의 관계를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려란 어떤 무언가(A)와 또 다른 무언가(B)가 서로 상대자가 되어 존재할 때 서로에게 유의미할 수 있는 말일테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자로 존재하는 영락없는 '반려자'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길다'는 개념은 '짧다'는 개념을 상대로 존재한다. '짧다'는 개념 역시 '길다'는 개념이 있기에 존재한다. 이와 같이 밝음과 어둠도, 슬픔과 기쁨도 서로에게 반려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반려 관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둘 다 사라져 버린다. 긴 놈이 사라지면 긴 놈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려하는 짧은 놈도 동시에 그 의미를 상실한다. 밝음도 어둠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 그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 애당초 '밝음'만 존재하였다면 우린 그것을 '밝음'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쁨 역시 슬픔이라는 반려자가 있었기에 '기쁨'이라 불릴 뿐이다. 그렇다면 천국도, 지옥도, 기쁨도, 슬픔도, 상대하는 개념에 의존해서 잠시 잠깐 성립하고 있는 순간적 존재들일 뿐이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고타마 붓다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pratītya, 緣) 발생(samutpāda, 起)한 개념일 뿐 기쁨이다, 슬픔이다, 밝음이다, 어둠이다라는 것이 각각 불변하는 성질을 갖고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이름 하여 연기법(緣起法)의 천명이었다. 그래서 훗날 대승 불교도는 이러한 고타마 붓다의 연기법을 이어 받아 "일체 모든 것은 홀로 성립되는 불변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에게 기대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공(空)한 것일 뿐!"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렇게 연기법은 공이 되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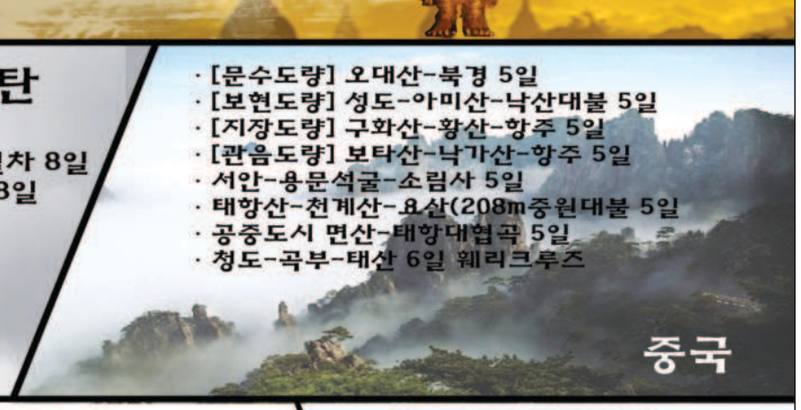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YESGOOD.CO.LTD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정
문의 전화 02-365-7747
오시는 길 :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앞 대불광빌딩 2층
www.mahayeon.com

천불천탑 황금사원의 부처님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 인도11일(8대성지)
· 인도/네팔 15일
· 스리랑카 6일
·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티벳/부탄
· 티벳6일
· 티벳 하늘열차 8일
· 부탄-네팔 8일
· 동티벳 9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태항산-천계산-요삼(208m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태항대협곡 5일
· 청도-곡부-태산 6일 훼리크루즈
중국


라오스
· 라오스 6일
·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6일
· 베트남-캄보디아 6일
베트남/캄보디아


태국/대만/홍콩
· 태국 5일
· 대만 5일
· 대만-홍콩 5일


· 동유럽4개국 9일
· 동유럽-발칸 6개국 9일
동유럽/발칸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라디오



BTN불교라디오 울림!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울림을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울림과 24시간 함께해요!
www.btn.co.kr 또는 m.btn.co.kr을 통해서도 들으실수 있습니다.

BTN 불교라디오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02-3270-3464~7 www.btn.co.kr